

# 미얀마 개황

2019. 8



외교부

A map of Southeast Asia with Myanmar highlighted in yellow. The rest of the map is light blue. The text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is centered over the yellow area. A red dot marks the location of Nay Pyi Taw, with the text 'Nay Pyi Taw' below it.

#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Nay Pyi Taw

## 미얀마 국기



- 현 미얀마 국기는 2010년 10월 국명을 미얀마연방(The Union of Myanmar)에서 미얀마연방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으로 변경하면서 채택
- 가로줄의 노란색은 결속, 초록색은 평화, 빨간색은 용기를 의미하며, 가운데에 위치한 흰 별은 단일성을 상징

## 미얀마 국가 문장



- 문장 중앙에는 월계수 잎에 둘러싸인 미얀마 지도가 위치한 가운데, 문장 맨 위에는 통합연방의 영원함을 의미하는 별이 위치해 있고 문장 좌우로는 '친떼(Chinthe)'라는 상상의 동물이 바깥을 향해 앉아 있으며, 문장 아래에는 미얀마어로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기재

# 미얀마 개관

## 가. 일반

국 명	미얀마연방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수 도	네피도(Nay Pyi Taw) * 2006년 양곤에서 네피도로 수도 이전
건국일	1948년 1월 4일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일)
위 치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부 (태국·라오스,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접경)
면 적	676,577km <sup>2</sup> (한반도의 약 3배)
기 후	열대성 몬순 기후로 우기(5~10월)와 건기 구분 뚜렷 - 연평균 기온 27.4°C, 연평균 강우량 2,513mm
시 차	한국보다 2시간 30분 늦음
인 구	약 5,283만 명 (IMF)
민 족	버마(68%), 산, 까친, 꺼인, 몬, 친, 라카인 등 135개 민족 * 미얀마 정부 공식 발표 기준
언 어	미얀마어(공용어), 기타 소수어
종 교	불교(88%), 기독교(6%), 이슬람교(4%), 토속 신앙(1%), 힌두교(0.5%) 등

## 나. 정치

정부 형태	대통령중심제 * 단, 군부도 상당한 권한 보유
주요 인사	대 통 령 : 윈 민(U Win Myint) 국가고문 : 아웅산 수찌(Daw Aung San Suu Kyi) 제1부통령 : 민 쉘(U Myint Swe) 제2부통령 : 헨리 반 티유(U Henry Van Thio) 하원의장 : 티 쿤(U T Khun Myat) 상원의장 : 윈 까잉 탄(Mahn Win Khaing Than) 군 총사령관 : 민 아웅 흘라잉(U Min Aung Hlaing) 대법원장 : 툰 툰 우(U Htun Htun Oo)
행정 구역	버마족 거주 7개 주(Region), 비버마족 거주 7개 주(State)
군 사	지원병제 약 45만 5천 명 (육군 43만 명, 해군 1만 6천 명, 공군 9천 명)

## 다. 경 제(2018년 기준, 출처 : IMF)

경제 체제	시장경제 * 단, 과거의 사회주의적 요소도 일부 잔존
GDP	685.6억 달러
1인당 GDP	1,298달러
GDP 성장률	6.7%
물가상승률	5.9%
실업률	4.0%
교역액	365.2억 달러 (수출 153.8억 달러, 수입 211.4억 달러)
환 율	1달러=1,430짜트 (2018년 평균, World Bank)

## 연표로 본 미얀마 현대사

- 1947 ○ 독립헌법 제정
- 1948 ○ 독립  
AFPFL(Anti-Fascist People's Freedom League), 다양한 정당, 명망 인사들의 느슨한 연합 통치기
- 1958 ○ 과도(군사)정부 총선 이전까지 18개월간 군부의 합법적인 통치 허용
- 1960 ○ 총선(누(Nu)가 주도하는 Union Party 승리)
- 1962 ○ 군부 쿠데타에 따른 누(Nu) 정권 전복 및 네 윈(Ne Win) 집권
- 1974 ○ 헌법 개정(버마식 사회주의 체제 하의 군부 기반 일당 (Burma Socialist Program Party, BSPP) 통치)
- 1988 ○ 학생 중심 반정부 시위,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귀국, 민주주의민족연맹(NLD) 창당, 네 윈 사임, 친군부 쿠데타 및 헌법 폐기
- 1989 ○ 총선(NLD 압승) 및 군부의 정권 이양 거부
- 1997 ○ 아세안 가입
- 2003 ○ 민주화 7단계 로드맵 발표(헌법 개정, 의회 구성, 민정 이양 등)
- 2006 ○ 양곤에서 네피도로 수도 이전
- 2007 ○ 샤프란 혁명(승려 중심 민주화 시위)
- 2008 ○ 사이클론 나르기스에 의한 재난 발생,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 2010 ○ NLD의 불참 하에 총선 실시, 여당 통합연대발전당(USDP) 압승
- 2011 ○ 의회 소집, 민선정부로의 정권 이양 및 폐인 세인 대통령 취임
- 2015 ○ 총선 및 NLD 압승
- 2016 ○ NLD 정부 출범

# 목차

## I. 역사

1. 고대 및 왕조 시대 12
2. 영국·일본 식민 시대 13
3. 독립과 사회주의 체제 도입 14
4. '랑군의 봄'과 군부 재집권 15
5. 민주화 7단계 로드맵 추진 및 USDP 민선정부 출범 16
6. 평화적인 정권교체와 NLD 정부 출범 18

## II. 정치

1. 국가 조직 20
2. 최근 국내 정세 25
3. 주요 정치 현안 30

## III. 외교

1. 외교정책 기조 40
2. 주요국과의 관계 40

IV. 국방	1. 미얀마군의 태동 및 발전 경과	46
	2. 군 현황	47
	3. 해외 군사 협력	50

V. 경제·통상	1. 기본 여건	52
	2. 전반적 현황	54
	3. 분야별 현황	55
	4. 미얀마 경제정책 방향	59

VI. 사회·문화	1. 사회	64
	2. 문화	67
	3. 관광	70

## VII.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기본 관계 74
2. 정무 관계 76
3. 경제 관계 78
4. 개발협력 85
5. 사회·문화 관계 88
6. 영사·한인 동포 현황 92

## VIII. 북한과의 관계

1. 개 관 96
2. 주요 인사 교류 현황 97
3. 조약·협정 및 기타 문서 98

## IX. 부 록

1. 주요 인사 인적사항 100
2. 조약 및 기타 양자문서 체결 현황 102
3. 대사관 정보 104
4. 약어 정리 105
5. 미얀마 공휴일 107

# I

## 역사

1. 고대 및 왕조 시대
2. 영국·일본 식민 시대
3. 독립과 사회주의 체제 도입
4. '랑군의 봄'과 군부 재집권
5. 민주화 7단계 로드맵 추진 및  
USDP 민선정부 출범
6. 평화적인 정권교체와  
NLD 정부 출범

## 1. 고대 및 왕조 시대

- 수완나부미(Suvannabhumi) 왕국(기원전 3세기 건국)
- 기원전 480년경 몬(Mon)족이 미얀마에 진출해 최초 왕국인 수완나부미(황금의 땅) 건국
- 바간(Bagan) 왕국(약 849~1297)
- 미얀마 중부에서 성장해 온 바간 왕국이 아노야타(Anawratha) 왕의 즉위(1044)와 문족 정벌을 계기로 미얀마 최초의 통일제국으로 발돋움하고, 상좌부불교를 통해 미얀마 불교의 기틀 완성
- 원 세조 쿠빌라이가 파견한 몽골군에 타격을 입고 내분이 겹쳐 1297년 멸망
- 여러 국가 병존 시대(14~16세기)
- 바간 왕국 멸망 후 200여 년간 산족·버마족·문족 등 여러 민족들의 국가가 병존하면서 패권 쟁탈을 위한 각축전 전개
- 따웅우(Taung Oo) 왕국(1510~1752)
- 인와(Innwa) 왕국에 종속되어 있던 따웅우 공국의 밍기뇨(Mingyi Nyo) 공이 1510년 독립하였고, 1531년 왕위를 계승한 따빈쉐티(Tabinshwehti) 왕 치하에서 따웅우 왕국의 판도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1752년 프랑스의 무력 지원을 받은 문족에게 패망
- 끈바웅(Konbaung) 왕국(1752~1885)
- 알라웅파야(Alaungpaya) 왕이 다시 문족을 격퇴하고, 버마 역사상 최대 영역을 지배한 끈바웅 왕국 건국

## 2. 영국·일본 식민 시대

- 끈바웅 왕국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던 영국에 3차례(1차 1824~1826년, 2차 1852년, 3차 1885년) 패한 후 멸망하고 1886년 영국령 인도에 편입
- 1937년 4월 영국 의회의 버마 통치 개정법에 따라 버마가 인도에서 분리되어 직할 식민지와 자치령의 중간적 법적 지위 획득
-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후 일본이 아웅산(Aung San) 등 ‘30인의 동지’의 버마독립의용군 조직을 지원한 후, 1942년 3월 양곤을 점령, 1945년 까지 버마 지배
- 일본의 항복 후, 1947년 1월 런던에서 아웅산-애틀리(Aung San-Atlee) 합의를 타결하여 버마 독립의 기반 마련
  - 이어 1947년 2월 소수민족들과 연방국가 수립 문제를 협상을 위한 연방평화회의(Panglong Conference, 뽕롱회의) 개최
  - 그러나 1947년 7월 19일 각료회의 도중 아웅산 장군이 암살됨에 따라 ‘30인의 동지’의 일원인 누(Nu)가 임시정부 총리에 취임
- 1947년 9월 헌법이 공포되고 1947년 12월 영국 의회의 버마 독립 법안 가결

### 3. 독립과 사회주의 체제 도입

- 1948년 1월 4일 영국에서 독립한 버마연방(Union of Burma)은 영연방에 가입하지 않고 엄정 중립주의 노선 표방
  - 사오 쉐 따익(Sao Shwe Thaik) 대통령과 누(Nu) 총리가 이끄는 초대 정부가 공산당 및 소수민족들과의 갈등, 집권당인 AFPFL(Anti-Fascist People's Freedom League)의 내분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
- 1962년 3월 '30인의 동지' 일원이었던 네 윈(Ne Win) 장군이 쿠데타로 집권하고 1962년 4월 마르크스주의와 불교적 가치를 접목한 '버마식 사회주의' 방침을 발표
  - 네 윈은 혁명평의회(The Union Revolutionary Council) 의장으로서 버마를 통치하면서 1962년 7월 창당한 BSPP(Burma Socialist Programme Party) 의장도 겸임
  - 그러나 버마식 사회주의에 따른 국유화의 영향 등으로 기업 운영의 효율성 저하, 민간부문 활력 감소, 이에 따른 경기침체와 마이너스 성장 초래
- 1974년 버마연방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the Union of Burma)으로 국명 변경
  - 네 윈 장군은 대통령 재임기간(1974~1981)과 후임 산유(San Yu) 대통령 재임기간(1981~1988)에 이르기까지 BSPP 의장으로서 계속 최고 권력 행사

## 4. '랑군(Rangoon)의 봄'과 군부 재집권

- 1988년 3월부터 9월까지 지속된 학생 시위를 군부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발발하면서 네 윈은 BSPP 의장직 사임. 그러나 군부의 친위 쿠데타가 이어지는 등 민주화 진통 지속(일명 '랑군의봄')
  - 네 윈의 BSPP 의장 사임(1988.7월) 후, 1988년 8월 8일, 총선 실시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확산되었고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천 명이 사망('8888 민주화 운동')
  - 1988년 4월 모친 간병차 귀국한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가 반정부 민주화 운동 전면에 나서면서 선친인 독립 영웅 아웅산 장군의 후광 속에 민주화의 상징으로 부상
  - 1988년 9월 말 아웅산 수찌 등이 중심이 되어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결성
  - 아웅산 수찌는 1989년 7월 최초 가택연금에 이어 2000년 9월, 2003년 5월에도 가택연금을 당했고, 2010년 11월에야 가택연금 최종 해제
- 1988년 9월 18일 소 마웅(Saw Maung) 국방장관 겸 총사령관의 친위 쿠데타로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중심 군정 출범
  - SLORC은 모든 통치기구를 해체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한 후, 1989년 6월 미얀마연방(Union of Myanmar)으로 국명 변경
- 1990년 5월 총선에서 NLD가 압승(의석의 82% 차지)했으나, 1991년 2월 4일 소 마웅 SLORC 의장은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정권이양 의사가 없음을 표명

## 5. 민주화 7단계 로드맵 추진 및 USDP 민선정부 출범

- 2003년 8월 킨 눈(Khin Nyunt) 총리가 민주화 7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04년 5~7월간 로드맵에 따른 국민회의 1차 회의 개최(계층별·민족별 국민회의 참석자 1,000여 명은 대부분 정부가 지명)
  - 국민회의는 2007년 7~9월 제5차 회의에서 신헌법의 기본원칙을 채택한 후 폐회
- 2004년 10월 킨 눈 총리가 물리나고 소 윈(Soe Win) SPDC 제1서기가 총리 취임
- 2005년 11월 네피도(Nay Pyi Taw, '왕이 거처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수도 이전을 개시하여 2006년 2월 완료
- 2007년 9~10월 유가 대폭 인상 등으로 승려 중심의 대규모 반정부 민주화 시위 촉발(샤프란 혁명), 군정의 유혈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 발생
- 2007년 10월 소 윈 총리가 지병으로 사망하고 떤인 세인(Thein Sein) SPDC 제1서기가 총리 취임
- 2008년 5월 13만여 명의 사망·실종 피해를 입힌 사이클론 나르기스(Nargis)의 여파 속에 국민투표(투표율 98.12%, 찬성률 93.82%)로 신헌법 채택
- 2008년 채택된 신헌법에 근거하여 2010년 10월 미얀마연방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으로 국명 변경, 2010년 11월 총선 실시로 의회 구성
  - 총선을 위해 여당인 통합연대발전당(USDP,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등 40여 개 정당이 등록했고, 총선에서 21개 정당이 의석 확보

- NLD는 선거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총선 불참을 결정하고 정당 재등록을 포기하였으나 2011년 11월 정당등록법 개정으로 정치 참여 기회 확보
- 2011년 2월 연방의회가 개원하여 떼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과 니안 툰(Nyan Tun) 및 싸이 마옥 캄(Sai Mauk Kham) 부통령 선출
- 2011년 3월 군정 통치기구 SPDC는 마지막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권한을 민선정부에 이양하고 공식 해체
- 떼인 세인 정부는 서방과 학계의 당초 예상과 달리 정치 개혁과 경제 개방을 위한 일련의 조치 단행
  - 아웅산 수찌 NLD 의장과의 대화, 대규모 정치범 석방, 소수민족과의 평화협상과 전국적 휴전협정(NCA) 서명, 언론 자유화, 외국인투자법 개정 등

## 6. 평화적 정권교체와 NLD 정부 출범

- 2015년 11월 평화적으로 실시된 총선에서 아웅산 수찌가 이끄는 NLD가 압승
  - 총선에 참여한 약 90개 정당 중 전국적으로 후보를 낼 수 있는 정당은 NLD와 USDP에 불과하여 사실상 이들의 양당 구도로 선거 진행
  - 연방의회 총 664석(상원 224석, 하원 440석) 중 군부 지명 166석(상원 56석, 하원 110석)과 선거 불실시 7석(하원 7석)을 제외한 491석(상원 168석, 하원 323석) 중 390석(상원 135석, 하원 255석)을 NLD가 석권
- 총선 결과에 따라 2016년 2월 新의회가 개원되고 2016년 3월 NLD 정부 출범
  - ▲국가 화해 및 평화 프로세스 ▲민생 개선과 경제 개혁 ▲개헌을 통한 법치 구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 중

# II

## 정치

1. 국가 조직
2. 최근 국내 정세
3. 주요 정치 현안

# 1. 국가 조직

## 가. 정 체

- 대통령중심제
  - 대통령은 국가(연방)원수 겸 행정수반
  -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며(헌법 제57조) 국내의 그 누구보다도 서열상 우선
- 3권 분립과 군부의 독자적 지위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권 분립
  - 대통령은 연방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
  - 군에 연방과 국민의 통합 및 헌법 보호 책임 부여
  - 군 총사령관은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개헌 저지선인 연방 상원의원 25% 및 하원의원 25%까지 지명할 수 있으며, 3개 부처 장관(국방·내무·국경장관) 지명권도 보유

## 나. 행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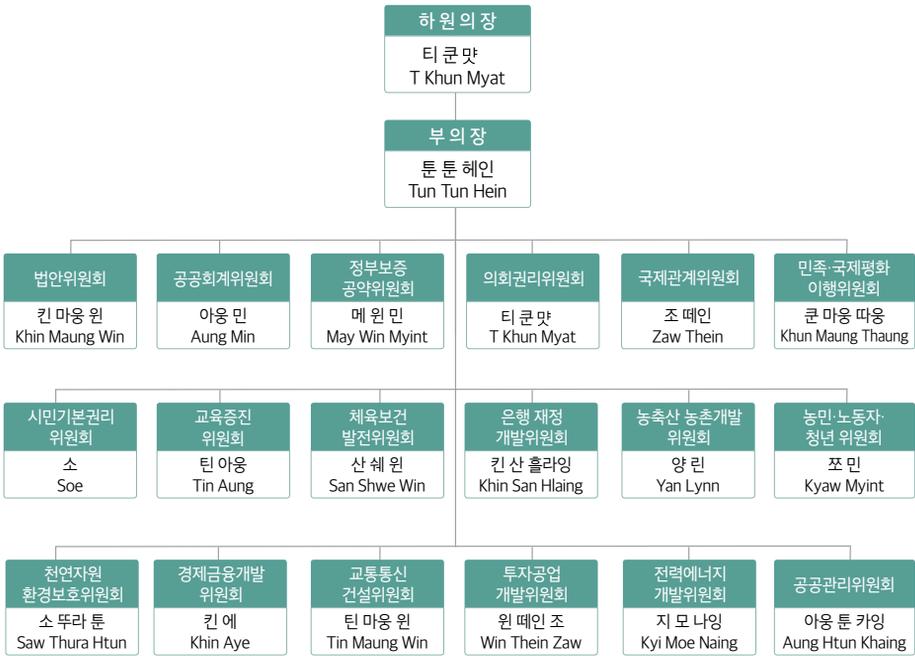
- 대통령
  - 현 대통령 : 윈 민(Win Myint)
  - 위 상 : 국가원수 겸 행정수반(헌법 제16조)
  - 선 출 : 연방 상·하원 합동의회를 통한 간선제
    - ※ 상원·하원·군부가 대통령 후보를 각 1명씩 추천하면 연방 상·하원 합동의회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는 대통령, 나머지 2명은 부통령으로 선출
  - 임 기 : 5년(의회와 동일)
  - 권 한 : 대통령은 헌법과 법에 따라 행한 통치행위에 대해 사법부와 입법부에 책임을 질 의무가 없고,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과 기능을 행사(헌법 제215조)
    - ※ 이외 사면권, 공무원 임면권, 조약 체결권, 훈장 수여권 등 보유
- 정부 조직 : 25개 부처, 연방검찰청(법무부), 연방감사원 등으로 구성

## 미얀마 연방정부 조직도(2019년 7월 기준)



## 다. 입법부(2019년 7월 기준)

- 연방 상·하원 합동의회(Pyidaungsu Hluttaw)
  - 의장 : 연방 상원의장 및 연방 하원의장 교대  
 ※ 2016년 2월부터 2년 반은 윈 카잉 탄 상원의장, 이후 2년 반은 티 쿤 맛 하원 의장이 수임하는 구조)
  - 헌법상 하원과 상원 간 권한과 기능 차이가 거의 없으나 하원의 의석 수가 상원보다 많은 점 등으로 인해 하원이 보다 큰 영향력 행사
- 연방하원(Pyithu Hluttaw)
  - 의장 : 티 쿤 맛(T Khun Myat, 무소속)
  - 의석 : 최대 440석(선출 330석, 군 총사령관 지명 110석)



- 연방상원(Amyotha Hluttaw)
  - 의 장 : 윈 까잉 탄(Mahn Win Khaing Than, NLD)
  - 의석 : 224석( 선출 168석, 군 총사령관 지명 56석)



\* 미얀마 측  
한-미얀마 의원친선협회장

## 라. 사법부(2019년 7월 기준)

- 일반법원
  - 연방대법원(대법원장 : 툰 툰 우, Htun Htun Oo)을 최고재판소로 하여 주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으로 구성
  -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 포함 7~11명 규모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대법관은 연방  
대법원장과의 조율 및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헌법재판소
  - 현 헌법재판소장 : 묘 눈(Myo Nyunt)
  - 대통령과 상·하원의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한 9명을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헌법 해석과 위헌 판결, 권한쟁의 판결 등 수행
    - ※ 미얀마는 영국 일반법 체계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대륙법계인 헌법재판소 제도도  
도입
- 군사법원

## 2. 최근 국내 정세

- 2015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찌 의장이 이끄는 NLD가 승리
  - 연방 상·하원 664석 중 NLD 390석(59.3%), 군부 166석(총 의석수의 25%, 헌법상 보장 비율), USDP 41석, 여타 야당·무소속 60석, 선거 불실시 7석
    - ※ 총 664석 중 연방하원 7개 지역구에서는 홍수·치안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미실시
  - 지방의회도 전체 14개 주(Region, State) 중 11개 주에서 NLD가 압승 (라카인·산까친주 제외)
- 2016년 2월 1일 연방 상·하원 합동의회가 새로이 출범하였고 지방 의회도 같은 날 출범
  - NLD의 원 민과 원 까잉 탄 의원이 각각 연방 하원·상원의장직 수임
    - ※ 연방 상·하원 합동의회 의장직은 미얀마 헌법에 따라 첫 2년 반은 상원의장이, 잔여 2년 반은 하원의장이 수임
    - ※ 한편 하원부의장으로 까친 출신 티 쿤 맛 USDP 의원이, 상원부의장으로 라카인 출신에 따 아웅 ANP 의원이 각각 인선(여타 정당,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
- 2016년 3월 15일 연방의회가 대통령·부통령을 선출하고 이에 따라 2016년 3월 30일 틸 쏘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NLD 정부 출범
  - 2016년 3월 15일 연방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틸 쏘 대통령 및 부통령 2명(민 쉐 前 양곤 주지사, 군부의원 지명), 헨리 반 티유(친좌 출신, 상원 그룹 지명) 선출
  - 2016년 3월 하순 연방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틸 쏘 대통령 선출인이 제출한 정부 조직 개편안(기존 36개 부처를 21개로 축소) 및 연방장관·헌법재판관·선거관리위원 등 명단안 논의·승인
- 2016년 3월 30일 연방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틸 쏘 대통령 등 취임
  - 아웅산 수찌 NLD 의장, 4개 장관직(외교·대통령실·전력에너지·교육) 수임

- 2016년 4월 초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취임
  - 연방상원 및 연방하원이 국가고문 직위 신설 법안을 가결하였고 틸 쏘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여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취임
  -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은 취임 시 2개 장관직(전력에너지장관, 교육장관)을 사임하고 3개 직위(국가고문, 외교장관, 대통령실 장관)만 유지
  - 이어 5월에는 국가고문을 보좌할 국가고문실 신설, 이로써 22개 부처 체제 구축, 이외 연방검찰청(법무부) 존재
- 2016년 4월부터 7월까지 NLD 정부는 정치범 석방, 비동맹 중립외교 재천명, 평화 프로세스 진행, 경제 계획 발표 등을 통해 국정운영 방향 정립
  - 5~7월간 8월 말 제2차 연방평화회의(21세기 뱅롱회의) 개최를 목표로 평화협상 기본 체제 구축 및 소수민족 무장반군 단체와 협의 개시
  - 7월 29일 NLD 정부, 기존 NLD 총선 강령에 기반한 경제정책 12개항 발표
    - ※ 국가 화해를 최우선으로 하되, 시장 지향 경제, 국가 재정운영 건전화, 인프라·농업 등 중시, 일자리 창출, 외국의 직접투자 증진 등을 정책 방향으로 명시
- 2016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제1차 연방평화회의(21세기 뱅롱회의) 개최
  - 정부와 군부, 소수민족무장단체(EAOs, Ethnic Armed Organizations) 및 정당 등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 프로세스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 2016년 10월 9일 라카인 사태 발발
- 2016년 11월 20일 까친독립군(KIA, Kachin Independence Army)을 주축으로 하는 동북 소수민족 반군단체 연합체 ‘북부동맹’의 중국 접경 도시 무세 습격 발생
- 2016년 3월 30일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NLD 정부 출범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일자리 창출, 교통 접근성 강화, 전력 확보 등 향후 정책 방향 공표

- 2017년 4월 1일 연방 상·하원(12개석) 및 지방의회(7개석) 보궐선거 실시  
- 집권여당인 NLD는 연방의회 8석과 지방의회 1석 획득
- 2017년 5월 24일부터 29일까지 제2차 연방평화회의(21세기 뽕통회의) 개최  
- 미얀마군과 교전 중인 전국적휴전협정(NCA, Nationwide Cease-fire Agreement) 비서명 반군단체(MNDAA, TNLA, 아라칸군)까지 참여  
- 정부, 군부, EAOs, 정당 대표들은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에서 37개항의 합의를 도출하여 연방합의 제1부를 채택
- 2017년 8월 25일 라카인 사태 재발  
- 라카인 북부 지역 30개 경찰초소에 대한 무슬림 공격 발생  
- 미얀마 정부는 이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아라칸로hing자구원군(ARSA)의 테러 행위로 규정하였으며, 이어 미얀마 군부의 진압 작전이 개시되어 라카인 북부 지역의 무슬림 수십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피난
- 2018년 3월 28일 윈 민(Win Myint) 제10대 대통령 선출  
- 틸 쏘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사임하여 하원에서 윈 민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으며, 연방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윈 민이 기존 두 부통령(민 쉐, 헨리 반 티유)을 누르고 신임 대통령으로 당선
- 2018년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제3차 연방평화회의(21세기 뽕통회의) 개최  
-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에서 14개항의 합의를 도출하여 연방합의 제2부 채택
- 2018년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미얀마 정부-NCA 서명 소수민족 무장단체 회의 개최  
- 제3차 연방평화회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2020년 이전 개최될 3개 회의에서 민주주의와 연방체제와 관련된 중요한 기본 원칙 설립에 요구되는 우선업무 프로세스 수립 등에 합의
- 2018년 11월 3일 연방의회·지방의회 등 총 13석 대상 보궐선거에서 NLD는 연방의원 하원 3석, 지방의회 및 주정부 장관 4석 등 총 7곳에서 승리

- 수찌 국가고문 및 NLD 정부는 라카인 문제 및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는 가운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 개혁 및 민생 개선을 적극 추진 중
  - 수찌 국가고문은 2019년 초부터 소수민족이 집중된 지방 시찰을 통해 적극적인 민생행보 전개 중
- 2018년 12월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군 총사령관은 북부와 동부 지역(라카인 제외)에서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이며, 이는 2019년 4월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2019년 6월까지 1차 연장, 2019년 8월까지 2차 연장
  - 군부의 전례없는 조치에 당지 전문가들은 대체로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

## 미얀마 내 주요 정치단체

-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의장 :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 NLD는 1990년 5월 총선에서 총 485석 중 396석을 획득(총 의석의 82%)해 압승을 거두었으나, SLORC측이 동 총선은 전 국민의 의사를 전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NLD에 정권 이양 거부
  - 2010년 11월 총선에 불참하고 정당 재등록을 포기하여 정당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2011년 11월 정당등록법 개정을 통해 재등록
  - 2012년 4월의 보궐선거에서 연방의회 대상 45석 중 43석을 차지, 아웅산 수찌를 포함한 주요 NLD 인사가 제도권 정치에 합류
  - 2015년 11월 총선에서 NLD는 연방의회 총 의석의 약 60%(군부 자동 할당 의석 제외 시 제외하는 경우 약 80%)를 차지하여 압승(하원 255석, 상원 135석)
- **USDP(Union Solidarity Development Party, 의장 : 딘 테이)**
  - 1993년 9월 당시 SLORC 정부는 USDA라는 관변단체를 만들어 전국적인 조직망(정부측 주장, 회원 2,200만 명)을 구성한바, 2010년 5월 총선에 대비하여 이 조직을 USDP라는 이름의 정당으로 전환, 등록
  - 2010년 11월 총선에서 연방상원 224석 중 129석, 연방하원 440석 중 259석을 차지
  - 2015년 11월 총선에서는 연방의회 총 의석의 약 6%(군부 자동 할당 의석 제외 시 8.3%)에 해당하는 41석(하원 30석, 하원 11석)만을 차지하여 제2당으로 세력 약화
- **ANP(Arakan National Party, 의장 : 에 마웅)**
  - 기존 두 개의 라카인 지역정당(ALD, RNDP)이 통합, 2014년 3월 출범한 지역 정당으로 2015년 11월 총선 시 연방의회에서는 22석(하원 12석, 상원 10석)을 차지, NLD 및 USDP에 이어 제3당의 위치를 확보하였고, 라카인 주의회에서는 전체 47석 중 22석을 확보하여 제1당의 위치 확보
- **SNLD(Shan Nationalities League for Democracy, 의장 : 쿤 툰 우)**
  - 1988년 설립된 산주 기반의 지역 정당으로서, 1990년 선거에서는 제2당의 지위를 확보했으나 2010년 선거에는 불참
  - 2015년 11월 총선 시 연방의회에서 15석(하원 12석, 상원 3석)만을 확보하며 NLD, USDP, ANP에 이은 제4당의 위치 확보
- 기타 TNP, ZCD, MNP, PNO 등이 의회에서 극소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정치적 영향력은 미미

### 3. 주요 정치 현안

#### 가. 미얀마 평화 프로세스 추진 동향

##### 1) 개요

- 미얀마 평화 프로세스란 1948년 독립 이후 약 70년간 지속되고 있는 민족 간 교전을 종식하고 국가 화해 및 ‘민주적 연방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대화 과정을 의미
  - 수찌 국가고문이 이끄는 NLD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평화 프로세스 추진 중

##### 2) 배경

- 미얀마는 버마족을 비롯해 카렌족, 카친족, 몬족, 샨족, 친족, 라카인족 등 135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로서 민족 간 평화와 화합이 필수
  - 미얀마를 점령한 영국은 버마족과 非버마족을 분리하여 통치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시 非버마족들에게 연합군 동참 대가로 독립을 약속
- 1947년 2월 뽕롱회의에서 소수민족들의 자치가 원칙적으로 약속되었으나, 이를 주도한 아웅산 장군이 암살되고 네 윈 정부가 등장하면서 무산
  - 그 후 정부와 소수민족 간의 갈등이 표출되어 오랜 기간 정부군과 각 소수민족 무장단체들 간의 교전과 휴전이 반복

##### 3) 추진 현황

- 떼인 세인 정부는 포괄적 교전 종식을 위한 노력 끝에 카렌민족연합(KNU) 등 8개 소수민족 무장단체(EAOs)와 2015년 10월 전국적휴전협정(Nationwide Ceasefire Agreement, NCA)에 서명

- 와주연합군(NWSA), 카친독립군 등 일부 단체 서명 불참
- NLD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평화 프로세스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뽕롱회의의 정신을 계승하여 전국적휴전협정 체제를 유지, 평화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나 실질적 진전 별무

#### 4) 추진 경과

- 3차례(2016.8., 2017.5., 2018.7.)의 21세기 뽕롱회의 개최를 통해 정부-군부-EAOs 간 협의 지속
- 동시에 수찌 국가고문과 군부 및 EAOs 대표 간 고위급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 휴전협정 서명/미서명 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정치적 대화 모멘텀 유지

#### 5) 주요 성과

- 가장 최근 개최된 21세기 뽕롱회의(2018.7.)에서 민주적 연방제 원칙 수립 및 (안보 분야를 제외한) 정치·경제·사회·토지 분야에서의 연방 협의 달성
- 2018년 2월 몬족(New Mon State Party)과 라후족(Lahu Democratic Union) 단체 등 2개 단체가 추가로 휴전협정에 서명
- 안보 분야가 제외된 합의는 한계가 있으며, 민선정부-군부-EAO 간 신뢰 부족, EAO 간 이해 갈등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

#### 6) 향후 전망

- NLD 정부는 평화와 국민 화해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했던 출범 초기와 달리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지하기 위한 상황 관리에 중점
- 평화 프로세스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쟁점이 얽힌 복잡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

- 단기적으로는 ▲휴전협정 미서명 단체들의 NCA 체제 편입 ▲ 정부군과 교전 중인 아라칸군 등의 평화 프로세스 참여 ▲휴전협정 하의 정치대화 체제 개정 등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소수민족의 자치 허용 여부 및 범위 ▲소수민족 반군단체의 무장해제 ▲소수민족 지역 내 자원 공유 및 분배 ▲반군 병력의 국경수비대 편입 여부 ▲이를 보장할 헌법 개정 등이 주요 과제

## 나. 라카인 무슬림 소수민족(로힝자) 문제

### 1) 개요

- 라카인 문제는 미얀마 북서부 라카인주 내 ▲라카인 무슬림 소수민족(로힝자족)에 대한 처우 문제이자, ▲종교 갈등(불교 대 이슬람교) ▲난민 유입으로 인한 인접 국가(방글라데시)와의 갈등 등도 연관된 다층적인 문제
- 유엔 등 국제사회는 라카인 무슬림 문제를 인권 및 인도주의 현안으로 인식하는 반면, 미얀마의 입장에서는 역사·종교·민족 등 다층적 갈등 구도가 내재된 복잡한 문제로 인식

### 2) 역사적 배경

- 영국의 식민지 시절인 19세기 말부터 로힝자족의 라카인주 이주 급증
- 영국은 로힝자족을 영국의 식민통치의 조력자 및 불교도의 차별 수단으로 활용한바, 버마족 및 라카인 지역 내 불교도와 갈등 누적
- 미얀마 정부는 로힝자족을 ‘벵갈 지방에서 온 불법이주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여 ‘벵갈리’라고 칭하며, 미얀마의 135개 공식 민족에서도 제외

- 때인 세인 정부는 로힝자(벙갈리)를 포함한 무국적자들에게 일종의 임시 신분증인 백색카드를 발급하고 2010년 총선 투표를 허용 하였으나, 이후 백색카드를 폐지하고 2015년 총선에서 참여 배제

### 3) 라카인 사태의 인권 이슈화

- 2012년 6월 및 10월, 라카인주 불교도와 무슬림(로힝자) 간 폭력 사태로 약 200명 사망 및 10만 명 이상의 이탈민 발생으로 국제적 인권 이슈화
- 2016년 10월 무슬림 무장단체가 라카인주 북부의 미얀마 경찰초소를 습격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미얀마 군부가 치안작전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약 2개월간 수만 명의 로힝자족이 방글라데시로 피난
- 2017년 8월 코피 아난 前 유엔사무총장이 이끈 라카인문제 자문위원회가 문제 해결 권고사항 등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보고서 제출 직후인 8월 25일 새벽 아라칸 로힝자 구원군(ARSA, Arakan Rohingya Salvation Army)으로 알려진 무장단체가 라카인 북부 지역 30개 경찰 초소를 습격
  - 미얀마 정부는 이를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군부가 소탕작전을 감행, 약 70만 명(유엔 추산)의 무슬림이 방글라데시로 피난
- 미국·유엔 등 주요국 및 국제사회가 상기 사태에 대한 책임성 규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라카인 문제는 국제사회의 최대 인권 현안으로 대두

### 4) 국제사회 및 주요국 논의 동향

- (유엔) 미얀마 측에 ▲군사작전 중단 ▲제한 없는 인도적 접근 허용 ▲난민들의 안전하고 자발적이면서도 위엄 있는(safe, voluntary, dignified) 귀환 보장 촉구(2017.9. 사무총장 브리핑 및 2018.3. UNHCR 로힝자 난민 위기 관련 공동대응계획 발표)
  - 이후 안보리가 라카인 사태 관련 의장성명 채택(2017.11.)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기 개최 및 결의안 채택(2017.12.), 제39차 인권이사회 개최 및 결의안(A/HRC/39/L22) 채택(2018.9)
  - 인권이사회 국제사실조사단은 제39차 인권이사회 앞 최종보고서에서 미얀마 군부의 반인도적 범죄 관련 책임규명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또는 임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권고
  - 제39차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독립조사메커니즘(Independent Investigative Mechanism, IIM) 설치(2018.9.), 2019년 4월 미국 Nicholas Koumjian 소추관을 IIM 대표로 임명
    - ※ IIM은 2018년 9월 설립된 이후 유엔사무총장이 IIM 운영 규칙을 수립, 사무차장급을 소장으로 하는 62명의 직원들로 구성 / 제42차 인권이사회 및 제74차 유엔총회부터 연간 보고서 제출 예정
- **(아세안)** 2018년 11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시 라카인 난민 귀환을 지원키로 합의한 이래 최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귀환에 우호적 여건 조성을 위한 관여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
  - 립 족 호이(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은 2018년 12월에 이어 2019년 5월 미얀마를 방문, 라카인 인도적 지원 의사 재차 표명
- **(주요국)** 미국·유럽연합·이슬람국가는 미얀마 정부의 행동을 규탄 하면서 난민 귀환 보장을 위한 실질적 행동을 촉구하고 있으며, 중국·러시아는 라카인 문제의 복잡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요구하며 제재에 소극적 입장
  - 일본은 라카인 문제 관련 서구 국가들보다는 훨씬 유연한 접근을 취하면서 대 미얀마 ODA 지원 및 FDI 투자 등 경제협력을 지속 확대

## 5) 미얀마 정부 입장 및 조치 동향

- 미얀마 정부는 코피 아난 前 유엔 사무총장 주도의 라카인 문제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안보·개발·인권 측면에서 라카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노력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전개 중
  - 단, 로힝자에 대한 국적 부여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완고한 입장 견지

- 미얀마 정부는 난민의 ‘안전하고 자발적이며 위엄 있는’ 귀환에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해 유엔·아세안 등 국제·지역기구와 협력 중이나, 난민 귀환과 관련해서는 방글라데시와의 양자 협의를 가장 중시
  - (유엔) 유엔과 미얀마 정부 간 난민 귀환 관련 기본적인 협력 틀로써 미얀마-UNHCR-UNDP간 3자 MOU 체결(2018.6)
    - ※ 2019년 6월 Filippo Grandi 유엔 난민최고대표 미얀마 방문, MOU 이행현황 점검
  -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주의 지원조정센터(AHA 센터)와 협력
    - ※ 2019년 3월 AHA 센터는 라카인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 수요 조사 실시
  - (방글라데시와의 양자 협력) 방글라데시와 귀환 관련 양자 협정 체결 (2017.11.) 및 공동실무그룹(Joint Working Group) 운영 중
  
- 미얀마 정부는 유엔 국제사실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거부하면서 사실 관계 조사 및 책임성 규명을 위한 자체 기구 설립
  - 2018년 6월 Rosario Manalo 前 필리핀 외교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Kenzo Oshima, Mya Thein, Aung Tun Thet 등 4인으로 독립사실조사위원회(ICoE, Independent Commission of Enquiry) 구성
    - ※ 단, 미얀마측은 방글라데시의 콕스바자르 접근 제한으로 인해 ICoE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
  - 군부는 2019년 4월 3인의 패널로 구성된 조사법정 설립
    - ※ 미얀마 정부는 로마규정(Rome Statute)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라카인 사태에 대한 ICC 관할권 부인
  
-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라카인 지역의 평화를 지속가능한 개발과 맞물려 있는 중장기 과제로 인식하여 귀환 여건 조성과 함께 동 지역 투자 및 교역 활성화 추진
  - 2017년 10월 수찌 국가고문 주도로 라카인 재건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연방기업(UHRD) 창설, 현재 라카인 개발을 위한 다양한 민관사업 추진 중

## 6) 평가 및 전망

- 미얀마의 민주화를 가져올 것으로 국제사회의 기대를 한껏 받았던 NLD 정부는 라카인 사태로 국제적 평판에 큰 손상을 입고, 평화 프로세스, 경제 개혁 등 국가 우선과제 추진 과정에도 상당한 지연 초래
- 군부와 아라칸군 간의 교전 등으로 라카인 지역이 불안정하여 단기간 내 조속한 난민 귀환이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 미얀마 압박이 가중될 가능성 상존
  - 이를 염두에 두고 NLD 정부는 2020년 총선에 앞서 라카인 문제의 가시적 진전을 추구하기보다는 상황 관리 노력 중

## 다. 개헌 추진 동향

- 개헌은 2016년 3월 민선정부 출범 이후에도 군부가 헌법상 상당한 특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사실상 '1국가 2체제'를 벗어나,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써 NLD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
  - ※ 2008년 헌법상 군부 특권
    - 연방 상·하원 의석 25%를 군부에게 할당
    - 군 총사령관이 내무부·국방부·국경부 등 치안 관련 3개 부처 장관 임명
    -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군부에 이양
    - 개헌을 위해서는 의회 정원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여, 군부의 협력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한 구조
- NLD 정부는 2019년 2월 14개 정당 및 군부 지명 의원 등 총 45명으로 구성된 '2008년 헌법 개정 합동위원회'를 출범하고, 각 참여 정당들이 제시한 개헌 검토보고서를 2019년 7월 연방의회에 제출
  - NLD는 검토보고서에서 ▲'외국 국적의 배우자·자녀를 둔 자의 대통령 및 부통령 선출 금지' 조항 삭제 ▲'군 총사령관이 모든 군사조직의 최고지휘관이다' 문장 삭제 ▲군부 지명 의원 비율의 점진적 축소 등의 내용 제언

- 군부 지명 의원들은 개헌특위 설립 자체가 헌법 위배 행위라고 규정하고, 회의에는 참석하였으나 구체적 의견은 미제시
- 제1야당 USDP는 ‘개헌은 반대하지 않으나 특위를 통한 개헌 시도는 헌법 제433-436조에 위배된다’는 입장 발표
- NLD 정부는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 추진 가능성도 열어 두고 검토 중
  - 헌법 개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헌법 433-436조에 따르면 군부의 영향력과 관련된 중대 조항(약 100개)과 일반 조항의 개정 절차가 상이
  - 일반 조항 개정의 경우 의회에서 75%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하기만 하면 되지만, 중대 조항의 경우 의회 승인뿐 아니라 국민투표(유권자 50% 이상 찬성)도 필요

## 라. 2020년 총선

- 집권 3년차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NLD 정부의 국정 추진 성과가 경제 부문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대다수 정치평론가들은 ▲수찌 국가고문의 개인적 카리스마 ▲민주주의 대안 부재 등 감안, 2020년 NLD 집권 연장을 예측
  - 농촌 지역의 경우 수찌 국가고문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압도적인바, 이는 주민들이 수찌뿐만 아니라 부친인 아웅산 장군을 존경하기 때문
  - 과거 민주화 세력은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속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수찌 국가고문이 거의 유일하다고 인식하는바, 군부가 통치했던 과거로의 회귀를 원치 않기 때문에 수찌 국가고문을 지지
-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예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정치적 무관심에 따른 투표율 저하 ▲다수의 신당 출현에 따른 분산 효과 ▲제1야당 USDP와 소수민족 정당들 간 연합 가능성 등 감안, NLD가 2015년 당시의 압승을 재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III

---

## 외교

---

1. 외교정책 기조
2. 주요국과의 관계

## 1. 외교정책 기조

- 전통적으로 중립적 입장에서 독립 자주 외교(평화공존 5원칙), 비동맹, 모든 국가와의 선린우호 관계 유지 원칙 견지
  - 특히 지정학적 이유로 대 중국·인도 관계를 중시하면서, 아세안 및 한국·중국·일본과의 우호 관계 강화가 핵심 대외정책
- 현 NLD 정부는 상기 기본 외교정책 기조를 견지
  -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은 2016년 4월 대국민 신년연설, 미얀마 주재 외교단 대상 브리핑 계기에 미얀마의 자주독립, 비동맹 외교정책을 재천명
- 그러나 2017년 8월 라카인 사태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박 하에
  - ▲국제사회 고립 ▲투자 교역 저하 ▲대중 의존도 심화 등 도전과제에 직면해 한국·일본·인도·아세안 등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에 특히 역점

## 2. 주요국과의 관계

### 가. 미국

- 미국은 2016년 3월 NLD 정부 출범 후 일부 제재 완화 등 대 미얀마 관계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2017년 8월 라카인 사태 이후 압박 기조 지속
  - 2012년 11월 오바마 대통령 방문 이후 정상급 인사 방문 전무

- 미국 정부는 2018년 6월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및 2019년 5월 미 국무부 정무차관 등 고위급 인사 방문을 통해 미얀마 정부의 라카인 문제 해결 노력 촉구
- 미 의회에서는 미얀마 군부 인사의 라카인 문제 관련 책임성 규명 필요성을 지속 주장하는 등 대 미얀마 압박 여론 심화

## 나. 중국

- 라카인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 미얀마 여론이 악화되고 있으나, 중국은 미얀마와 고위급 교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협력 등 정치·경제·군사 분야에서 전면적 협력
  - 미얀마로서는 ▲접경 강국과의 마찰을 회피할 필요가 있고, ▲특히 중국 접경 지역 반군과의 평화 구축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며, ▲라카인 문제로 인해 서방의 압박이 유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최대 투자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 및 지원이 절실
  - 중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지정학적(인도양 연결망 확보) 전략적 가치 ▲경제적 이익 ▲중국계 주민 보호 등 미얀마와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일단 우호 관계 유지에 대한 양측의 이해 일치
  - 2019년 4월 수찌 국가고문은 제2차 일대일로 고위급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계기에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동참 의지 표명

## 다. 일본

- NLD 정권 들어 미얀마는 일본과 협력 관계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중
  - 일본은 필라와 경제특구로 대표되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국가화해평화특사 임명과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 대한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미얀마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기여에도 적극적
  - 최근 일본의 대 미얀마 투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례로 2019년 5월 도요타 측은 필라와 특별경제구역 내 5,300만 달러 규모의 조립공장 설립 계획 발표

- 특히 미얀마는 일본의 주요 무상원조 수원국으로서, 일본 내 친미얀마 그룹의 영향, 미얀마 내 중국 영향력에 대한 우려 등을 바탕으로 일본의 대 미얀마 접근 강화 지속
- 최근 고노 다로 외무대신(2018.1., 2018.8., 2019.7.), 아베 토시코 외무부 대신(2019.1.) 방문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도 활발

## 라. 인도

- 미얀마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도와 전략적·경제적 보완 관계로서 특히 미얀마는 지나친 대 중국 의존도 탈피를 위해 인도를 통한 균형 유지 노력 중
  - 인도는 1988년 이래 미얀마 군사정권과의 관계를 단절해 왔으나, 2000년 이래 실리 위주의 정책 추진 중
  - 인도는 ‘적극적 동방정책(Act East Policy)’이라는 기치 하에 미얀마의 천연가스 개발, 파이프라인 가설을 통한 천연가스 수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동북 내륙 지방의 인도양 통로 확보를 위해 라카인주 항만 및 내륙 수운 체계 보강에도 참여
  - 고위급 교류도 활발한바, 나렌드라 모디 총리(2017.9.),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2018.12.)이 미얀마를 방문하였으며, 윈 민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2019.5.)

## 마. 아세안(ASEAN)

- 미얀마는 1997년 7월 아세안 가입 이래 국제적 고립 탈피를 위해 아세안 및 회원국들과의 관계를 중시해 왔고, 2014년에는 아세안 의장국 역할 수행
  - 당시 아세안 회원국들은 서방의 제재는 효과 없이 서민의 고통만 가중시킨다며 ‘건설적 관여’의 기치 하에 대 미얀마 제재를 반대하고 내정 불간섭 입장 견지

- NLD 정부는 아세안 및 회원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활발한 대 아세안 외교를 전개 중
  - NLD 출범 직후 딘 쏘 대통령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은 첫 번째 방문국으로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를 방문(2016.5.)
  - 최근 아세안은 재난관리 인도주의 지원조정센터(AHA 센터)의 미얀마 방문 및 수요 조사(2019.3.), 립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 방문(2019.5.) 등을 통해 라카인 문제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추세

## 바. 유럽연합(EU)

- 유럽연합(EU)은 2013년부터 미얀마에 일반특혜관세(GSP)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무기 외의 모든 품목(Everything But Arms, EBA)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였으나, 2017년 8월 라카인 사태 이후 특혜관세 철회 여부를 검토하는 등 대 미얀마 압박 기조 지속
  - 유럽연합은 현재 로힝자 관련 인권침해에 연루된 미얀마 군부 고위 관계자 14명에 대한 제재(유럽연합 내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시행 중(민아웅 흘라잉 군 총사령관은 미포함)
  - 수찌 국가고문은 2019년 6월 체코와 헝가리를 방문하여 양자회담, 대학 강연 등을 통해 미얀마 정부가 라카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메시지 발신



# IV

## 국방

1. 미얀마군의 태동 및 발전 경과
2. 군 현황
3. 해외 군사 협력

## 1. 미얀마군의 태동 및 발전 경과

- 미얀마군은 영국 통치 하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청년그룹이 중심이 되어 1941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창설되었으며, 미얀마 독립에 핵심 역할 수행
- 독립의 주역 ‘30인의 동지’ 중 일원인 네 원이 1962년 3월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후 군을 국방뿐 아니라 치안과 체제 유지 및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활용하였고, 정부 각 기관 다수 요직에도 군 출신 인사를 기용
  - 이후 좋은 처우 등으로 다수의 인재들을 흡수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 엘리트 배출 기관 중 하나로 기능
- 오랜 독재와 버마식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실패 등으로 군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진 가운데 1988년 민주화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 1990년 총선 결과 부정 등이 이어지면서 미얀마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하락
- 2011년 민선정부로의 정권 이양으로 군정이 종식되었으나 2008년 채택된 헌법에 따라 미얀마 군부는 상당히 독립적인 지위와 큰 영향력 보유
- 현재 미얀마군은 5,876km에 달하는 5개국과의 국경선, 2,000km가 넘는 해안선을 방어하고, 소수민족 반군과 전투를 치르고 있으며, 꾸준히 병력을 증강하여 약 45만 명 규모의 병력을 유지 중

## 2. 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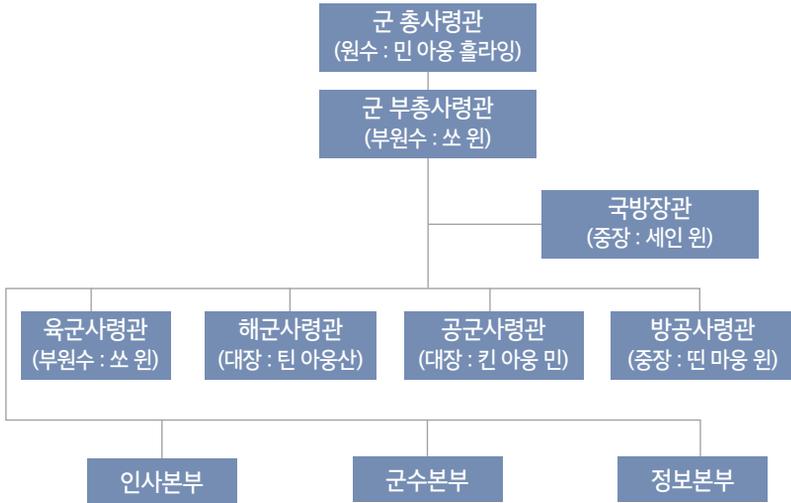
### 가. 주요 임무 및 정책 개요

- 주요 임무
  - ▲주권 수호 ▲영토 보호 ▲반군세력 진압을 통한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 ▲국가 건설의 주역으로 참여
- 정책 개요
  - (국방정책 기조) ▲민족의 화합을 통한 연방체제 유지 ▲국가 및 사회 안정 유지 ▲외부로부터의 침해 차단을 통한 주권 수호 ▲국가 발전의 핵심 역할 수행
  - (대외 군사정책) ▲엄정 무장중립 ▲외국과의 군사동맹 불체결 ▲외국에 대한 군사기지 불제공 ▲외국에 대한 군사지원 불허
    - ※ 이러한 무장중립 정책으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은 결여
- 미얀마 병역 제도
  - 평시 지원병제 채택, 유사시 국민개병제 실시

### 나. 군 조직(2019년 기준)

- 국방 예산 : 약 21억 달러
- 병력 규모 : 정규군 455,000명 (육군 430,000명, 해군 16,000명, 공군 9,000명)

• 지휘 구조



• 조직 특성

- 군 지휘부가 군 권력을 장악하고 통합군 체제를 유지
- 육군 위주 조직 편성(국방부 참모 기능의 상당 부분을 육군사령부에 이양, 합동작전 통제 기능을 육군사령부에 부여)
- 각 부대별로 인사 기능, 군수 기능이 작전 기능보다 우선

- 주요 부대 및 장비

구분	주요 부대	주요 장비
육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령부(14)</li> <li>• 경보병사단(10)</li> <li>• 기갑대대(10)</li> <li>• 야포대대(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차(434대)</li> <li>• 장갑차(1,300대)</li> <li>• 야포(1,690문)</li> </ul>
해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역사령부(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리깃함(5척)</li> <li>• 코르벳함(3척)</li> <li>• 유도탄정(19척)</li> <li>• 대장함(11척)</li> <li>• 연안경비정(65척)</li> </ul>
공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군기지(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투기(139대)</li> <li>• 수송기(25대)</li> <li>• 훈련기(80대)</li> <li>• 헬기(86대)</li> </ul>

#### 다. 미얀마 군수산업

- 방산국 예하 방위산업 공장에서 권총, 소총, 기관총, 수류탄, 지뢰, 낙하산, 방탄헬멧/조끼, 경장갑차, 탄약류 등을 생산
- 1993년 미국의 무기 금수 국가로 지정되어 주로 중국,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로부터 무기 도입
- 최근 인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독일, 이스라엘 등 도입선 확대 추진

### 3. 해외 군사 협력

- 유엔 PKO 및 국제 재난 구호 활동에 적극 참여
  - 동티모르 파병(1999) 및 쓰나미 재해 시 인도네시아 파병(2004)
  -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 활동(2008~2009)
- 말레이시아-중국 국방협력 관련 MOU 체결(2005.8.)
-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 평화감시단 파견(2008~2009)
- CARAT(Cooperation Afloat Readiness and Training)
  - 미국이 매년 말레이시아/브루나이/필리핀/싱가포르/태국을 4개월간 순회하면서 실시
- 말라카 해협 해적 활동 감시를 위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 연합 공중정찰 실시
-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군사협력위원회 설치(1993.2.) 및 육·해·공군 간 연합훈련 실시(부정기)
- 매년 영연방 5개국 방위협정(FPDA)에 따른 연합훈련 실시
- 2년마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육·해·공 연합훈련 각 1회 실시
- 매년 말레이시아-태국 수시 국경회담 및 육·해·공 연합훈련 각 2회 실시
- 서태평양 기뢰대항전 연합훈련 주최
  - 참가국 : 한국, 브루나이, 캐나다, 중국, 프랑스, 인도,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미국, 태국, 호주
- 2017년 술루해 해양안보를 위한 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 삼국 공동경비 시행 중

# V

## 경제·통상

1. 기본 여건
2. 전반적 현황
3. 분야별 현황
4. 미얀마 경제정책 방향

## 1. 기본 여건

- 미얀마는 동남아 에너지 수출국\* 중의 하나로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 1위 티크 목재 생산국

\* 미얀마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동남아 전통의 천연가스 수출국

### 미얀마의 주요 자원 보유 현황

구분	매장량	단위	비고
천연가스	41.3	조 입방피트(TCF)	
철광석	0.3	십억 톤	
석탄	0.2	십억 톤	
니켈	40	백만 톤	니켈광 기준
동	21	백만 톤	구리광 기준
아연	14	백만 톤	아연광 기준
텅스텐	15	천 톤	

- 미얀마는 전체 인구 중 15세 이상의 생산인구가 약 60%, 30세 미만 인구가 약 50%를 차지하는 등 젊은 노동력이 풍부
  - 제조업 생산직 월평균 임금은 2018년 기준 110달러 미만으로 동남아 중 최저 수준
-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인도 등 신흥 거대 경제권과 아세안을 잇는 요충지로서 동·서남아를 연결하는 생산기지 및 물류기지로 잠재성 다대
  - 미얀마 자체의 구매력과 소비시장도 지속 성장 중
  - 미얀마 1인당 GDP(2018년 기준 1,298달러)가 내구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생겨나는 1천 달러를 상회해 중산층이 태동하는 단계에 있으며, 1인당

구매력(PPP)은 2018년 6,948달러에서 2020년이면 약 1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2018년 3월 기준 미얀마의 산업구조는 GDP 대비 농업 비중 24.8%, 제조업 비중 35.4%, 3차 산업 비중 39.9%
  - 농업의 경우 노동인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광대한 토지와 유리한 기후 조건을 갖고 있으나, 군부정권 하 폐쇄적 경제정책에 따른 관개·저장 시설 부족 등 농업 기술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과제
    - ※ 미얀마 정부도 농촌 개발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발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농촌공동체 사업, 농업기계화 사업 등을 통해 농촌개발 지원 중
  - 제조업은 섬유봉제업 및 농·수산물 기초 가공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숙련 노동자의 부족으로 생산성이 낮아 직업훈련 확대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가 과제
    - ※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해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재 수요 증가와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본재·원자재 수요 증가를 수입으로 충당하면서 경상수지 적자 확대
- 투자자 보호 법령 미비, 도로·철도·항만·전력 등 인프라 부족으로 진출 기업의 원자재 및 제품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바, 활발한 기업 활동에 영향
  - 전기보급률이 40% 초반으로 에너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체 도로 중 비포장 도로가 약 30%
    - ※ 2019년 기업경영여건 세계 171위, 투자자보호 185위, 계약 실행 188위(출처 : Doing Business), 2018년 인프라 부문 글로벌 경쟁력 지수 세계 134위(출처 : 세계경제포럼), 2018년 물류운용지수 세계 137위(출처 : 세계은행)

## 2. 전반적 현황

### 가. 주요 경제 지표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2017	2018
GDP	억 달러	632.73	632.25	604.52	613.86	685.59
1인당 GDP	달러	1,231	1,219	1,157	1,166	1,298
GDP 성장률	%	8.2	7.5	5.2	6.3	6.7
물가상승률	%	5.1	7.3	9.1	4.6	5.9
실업률	%	4.0	4.0	4.0	4.0	4.0
총교역액	억 달러	469.20	371.30	276.46	334.48	365.16
수출액		224.95	126.06	117.25	139.30	153.77
수입액		244.25	245.24	159.21	195.18	211.39
무역수지		-19.30	-119.18	-41.96	-55.88	-57.62

출처: IMF

### 나. 현재 추이 및 향후 전망

- (경제성장) 2011년 페인 세인 대통령 취임 및 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 추진으로 매년 7~8%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 ▲신회사법 개정 ▲신투자법 개정 ▲투자대외경제관계부 신설 ▲지식재산권 법령 제정 ▲광산업 부문 외국인 투자 허용 ▲외국 기업의 도·소매업 거래 허용 ▲무역 대금으로 위안화와 엔화 사용 허용 조치 ▲보험(생명)업 시장 개방 ▲외국 은행에 이자율 16% 상한으로 담보물 없는 여신 허용 조치 등 미얀마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 조치가 미얀마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 그러나 라카인 이슈로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하면서 미국 및 유럽 기업의 직접투자가 감소, 미얀마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라카인 이슈 해결 여부가 향후 미얀마 경제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물가상승) 짜트(kyat)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및 대규모 재해로 인한 농작물 가격 인상 등으로 2016년 물가는 9% 이상까지 급등했으나,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은 약 5~6%대로 안정화
- (재정적자) 낮은 소득수준 및 낙후된 조세 행정 시스템으로 인해 세수 기반이 취약한 반면, 전력·물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정부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 지속

### 3. 분야별 현황

#### 가. 투자(미얀마 투자기업관리청 통계 기준)

-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11년 민선정부가 출범하고 개혁·개방 정책이 가시화된 2013년부터 증가세 지속
- 미얀마 정부의 라카인 이슈 해결 및 서방 기업의 투자 진출이 재개될 경우, 대 미얀마 투자 활성화 기대  
※ 미얀마 정부는 2016~2030년간 총 1,400억 달러 외국인투자 유치 계획
- 1988년 이후 2019년 5월 말까지 미얀마에 대한 누적 외국인투자 총 승인액은 약 800억 달러

- **(국가별 투자 현황)** 2016년 10월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로 대 미국 수출은 대폭 확대되었지만 2017년 8월 발생한 라카인 이슈 때문에 미국·유럽 기업의 투자보다는 중국·싱가포르 등 아세안 등 주변국들의 투자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보다 싱가포르가 최대 투자국 위치를 차지

※ 2017/18 회계연도에 총 28개 국가에서 직접투자

  - 싱가포르가 21.6억 달러(15.7%)로 최대 투자국이며, 이어 중국 13.9억 달러(10%), 네덜란드 5.3억 달러(3.8%), 일본 3.8억 달러(2.8%), 한국 2.5억 달러(1.8%) 순
  - **(싱가포르)** 다국적기업이 싱가포르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 우회 진출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2014/15 회계연도부터 최대 투자국
  - **(중국)** 미얀마 서부 짜옥푸와 중국 윈난성을 잇는 가스관 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대형 투자는 감소, 봉제 및 제조업 중심 투자는 증가세
  - **(일본)** 띵라와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제조업 중심 투자가 확대 중이며,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토요타가 2019년 6월 미얀마 진출을 선언
  - **(한국)** 자원개발·봉제업을 중심으로 식음료·건설자재·전선·사료공장 등 제조업 부문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 관련 투자 규모와 분야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현대자동차·자일대우버스는 조립공장을 건설, 롯데제과·SK에너지 등은 현지 기업의 지분 인수 방식으로 신규 진출
- **(분야별 투자 현황)** 과거 석유·가스 분야의 비중이 컸으나 최근 제조업, 운송·통신, 부동산 등으로 투자가 다양해지는 추세

  - 2017/18 회계연도에는 제조업이 17.7억 달러(30.9%)로 가장 많고 부동산 12.6억 달러(22%), 운송·통신 분야 투자가 9.0억 달러(15.7%), 전력 4.1억 달러(13.7%), 호텔·관광 1.8억 달러(3%) 순
  - 제조 분야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꾸준한 투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띵라와 산업단지의 성공적 운영과 생산기지로서 미얀마가 갖는 장점 및 정부의 제조업 육성 의지 등으로 향후 지속적인 투자 확대 예상

- 반면 2013년도 석유·가스 탐사권 계약 이후 2014/15년도 외국인 투자의 40%(32.2억 달러), 2015/16년도 51%(48.18억 달러)를 차지한 석유·가스 분야는 최근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2017/18년도 신규 투자가 전무한 상황

## 나. 교역

- 미얀마의 무역 규모는 개방이 본격화된 2012년부터 대폭 증가하다 홍수 등의 상황으로 잠시 주춤하였으나 점차 회복 중
  - 2015년 홍수로 쌀 생산 타격, 2016년 천연가스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 정체
- 무역수지의 경우 경제 규모 성장에 따른 산업용 기계 등 자본재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소비재 수입 증가로 적자폭 확대
  - 2011년 시장개방 이전에는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 수출 호조와 수입 제한으로 흑자 추세 유지
  - 2016년 출범한 NLD 정부가 무역적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제한 조치를 실시하여 적자 폭 감소
    - ※ 미얀마 상무부는 2016년 12월, 화장품을 포함한 사치품 수입 제한 및 공항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주류 및 담배에 세금 부과 조치 등 시행
- 미얀마는 주로 천연자원과 농·수산물 등 1차 상품과 의류 등을 수출하고, 기계·운송기기, 정제 광유, 기초금속 등 산업인프라 구축 및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주로 수입
  - 주요 수출품 : 천연가스, 콩류, 의류, 옥, 쌀, 수산물 등
  - 주요 수입품 : 기계·운송기기, 기초금속·제조품, 정제 광유, 전자기기·기구, 식용·식물성기름, 플라스틱류 등
- 미얀마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며, 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 등 주변국을 중심으로 교역 중

- 미얀마 수출품의 95%를 차지하는 농·수산물 및 광물 제품에 대해 중국이 2014년 면세 혜택을 주면서 대 중국 수출이 빠르게 증가, 2016/17년 미얀마 전체 수출액의 37%인 100억 달러를, 2017/18년 35%인 111억 달러를 수출
- 한편 2017/18 회계연도 미얀마의 대 한국 무역 규모는 7.98억 달러로, 한국은 미얀마의 제8대 교역대상국(미얀마 상무부 기준)
  - ※ 미얀마 상무부와 한국무역협회 간 통계는 서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바, 이는 미얀마측 기업들이 축소 신고하는 관행에 따른 차이로 파악
- 2016/17년 미국과의 무역 규모가 전년대비 251% 급증한바, 2016년 10월 미국의 대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및 2016년 11월 GSP 혜택 재개에 따른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추산
- 한편, 최근 접경 국가인 중국·태국·인도 등과의 육상 무역이 상당한 증가세
  - 연방정부의 국경무역 활성화 정책과 미얀마 최대 국경무역지대인 샨새 무세(Muse)를 통한 중국과의 무역 규모 급증

## 다. 기타 대외 경제 상황

### 1) 경상수지

- 천연가스 수출 증가와 미국 및 EU의 경제제재 완화로 인해 수출이 확대되었으나, 인프라 개발 사업 확대에 따른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액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경상수지도 적자 기조
  -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액 증가폭이 천연가스 수출, 관광 수익 증가폭을 상쇄함에 따라 2016/17년 5.3%, 2017/18년 6.7%를 기록

## 2) 국가신용등급

- 미얀마는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e)이 없는 상황
  - 현재 OECD(6등급), World Bank, 한국수출입은행(D1) 등은 미얀마에 대한 자체 신용등급을 설정하여 자금지원 필요 시 활용



## 4. 미얀마 경제정책 방향

### 가. 윈 민 대통령의 11대 개혁의제

- 2018년 4월 윈 민 대통령은 미얀마 신년을 맞이하여 경제·사회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대 개혁 의제’ 발표
  - 주요 내용은 전력과 인프라 확충, 거버넌스 개선, 농업인과 중소기업 지원 등이며, 복지, 교육, 인권보호와 마약근절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
- NLD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 이슈가 재집권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 체질 개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

## 원 민 대통령의 11대 개혁의제

구분	분야	상세 내용
1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까지 발전량을 3,000메가와트에서 6,000메가와트로 증가</li> <li>• 2021년까지 500KV 라인 추가 설치로 송전 능력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까지 100마일의 신규 고속도로 건설</li> <li>• 200마일의 비포장도로 포장도로화</li> <li>• 600마일의 신규 지방국도 건설 및 1,000마일의 지방국도 포장 도로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7월까지 외국과 협력을 통해 29개의 교량에 대한 안정성 검사 실시</li> <li>• 2019년 1월까지 위험 교량 보수</li> </ul>
2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한 사법 집행을 위한 연방법지원협회와 법치센터의 협력 강화</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예산사용 철저 관리</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부패위원회의 행동계획 수립을 통한 기능 제고</li> </ul>
5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신용정보 집적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절차 신속 이행(1개월 이내 승인 완료) 및 대출 정보 축적</li> </ul>
6	고용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DI를 통한 고용 창출</li> </ul>
7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수용 토지 반환</li> <li>• 2019년 4월까지 농업인들의 토지소유증명서 발급 완료</li> <li>• 농업 대출 신속화 및 농업 원료에 대한 세금 감면</li> </ul>
8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까지 공무원 주택 1만 호 추가 제공</li> <li>• 공무원 임금 10~20% 인상</li> </ul>
9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 개발 자원 확보(특히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접근성 강화)</li> </ul>
10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기구, 시민단체, 언론, 국민과의 협력 강화</li> <li>• 인권위원회의 역할 강조</li> </ul>
11	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마약 유통 근절을 위한 공권력 강화, 마약 관련 보상·처벌 체계 정비</li> <li>• 마약신속대응반 설립 검토</li> </ul>

## 나. 미얀마 지속가능발전계획

###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MSDP)

- NLD 정부는 2018~2030년간 국가 발전 청사진인 「미얀마 지속가능발전계획」을 발표(2018.9)
  - MSDP는 평화와 안정, 번영과 파트너십, 사람과 지구를 3대 중심축으로 5대 목표, 28개 전략, 251개 세부 이행 과제로 구성
- MSDP와 적합성을 확보하고 개별 사업의 공정성·형평성·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 추진 여부 등을 사전 심사하는 프로젝트 뱅크 설립

## 다. 주요 경제개혁 조치

- **(新회사법 개정)** 영국 식민지 시절 입안된 회사법을 100여 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외국인의 국내 기업 지분 소유 허용(최대 35%), 소규모 회사 정의 규정 및 행정 규제 완화, 투자자보호 조치 등 대폭적 규제완화
  - ※ 舊회사법은 1914년 제정된 후 100여 년간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법으로, 외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와 사업 운영에 큰 제약으로 작용
- **(新투자법 개정)**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법을 통합하여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투자 절차 간소화 등 규정
- **(투자대외경제관계부 신설)** 외국인 투자를 총괄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인하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 중앙행정기관인 투자대외경제관계부 신설
  - ※ 초대 장관으로 경제 분야에서 수찌 국가고문의 신임을 받고 있는 다웅 툰(Thaung Tun) 국가투자위원회 위원장을 임명
- **(보험시장 개방 및 은행시장 추가 개방)** 금융시장 경쟁 체제 구축 및 선진화 등을 위한 보험시장 개방 및 외국계 은행에 추가 면허 발행이 2019년 중 완료 목표로 진행 중

※ 은행의 경우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2016년 면허를 받았으며, 현재 기업은행·국민은행·산업은행 등이 추가 면허 신청 예정

※ 보험의 경우 DB손해보험이 신규 면허 제안서 제출(2019.6.)

- 그 밖에 ▲외국 기업의 도·소매업 거래 100% 허용 ▲지식재산권 법령 제정 ▲광산업 부문 외국인 투자 허용 ▲무역 대금으로 위안화와 엔화 사용 허용 ▲외국 은행에 이자율 16% 상한으로 담보물 없는 여신 허용 ▲정부 예산의 전자예산 제출(2019/20 회계연도부터 각 부처는 인쇄본뿐 아니라 파일 형태 예산안 제출도 가능) 등 정부의 경제개혁 조치가 경제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

# VI

---

## 사회·문화

---

1. 사회
2. 문화
3. 관광

## 1. 사회

### 가. 교육

- 미얀마 교육제도는 교육부가 주관하며, 영국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영국식 교육제도를 운영
  - 대학을 포함 대부분의 학교는 정부(교육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은 공무원
  -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교육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어 2016년 3월 말 출범한 NLD 정부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교육개혁 추진
- 기본 교육제도 : 1-5-4-3-4년제
  - 유치원 1년(만 5세)-초등학교 5년-중학교 4년-고등학교 3년-대학교 4년(3년제로 운영되던 대학교는 2012/2013학년부터 4년제 채택), 2019년부터 초·중·고 도합 총 12년제 실시)
  - 초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며, 대학도 연학비가 약 2만 짜트(한화 2만 원) 상당으로 사실상 무료
  - 미얀마는 영국식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정규 과목에서 음악·체육·미술 등 예체능 과목 부재
- 고등교육은 오랜 군정 하에서 파행을 겪어 오며 현재 동남아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 하락
  - 1964년 군정은 국수주의적 국가교육법을 통과시켜 외국에서 교육받은 교원을 파면하고 양곤대학교와 만달레이대학교를 단과대학별로 분리하여 별도의 부처에 소속시켰으나, 2014년 新국가교육법 선포로 대학교 관할이 교육부로 통일
  - 1988년 민주화 시위 후 신군부가 1989~1990년간 모든 대학교 폐교 조치, 1996년 대규모 학생시위로 1997~1999년간 전국 대학에 휴교령

- 선포, 의과대학·외국어대학·예술대학 등 일부 대학 및 대학원 수업 외에는 정상 수업을 모두 중단해 오다가 2000년 7월 재개
- 1950년대 아시아 최고 명문 중 하나였던 양곤대학교는 1996년 학부 교육이 폐지되었다가 2013년부터 재개
- 외국인의 대학 입학
  - 양곤외국어대학, 만달레이외국어대학, 양곤대학교와 MOU를 체결한 석·박사 과정 및 불교대학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대학 입학 제한

## 나. 보건·의료

- 국영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실시하나 의료시설 낙후 및 약품 부족
  - 대부분의 부유층 및 외국인은 출산 등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인접국인 태국 또는 싱가포르 병원을 방문
- 대부분의 의사들은 국공립 병원에서 받는 월급이 적으므로 소규모 개인 병원을 운영하거나 외국인 대상 병원에서도 일해 추가 소득 획득
- 미얀마 방문 시 간염(A·B·C형 포함 종류별), 장티푸스·파상풍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으며, 말라리아·일본뇌염·광견병·뎅기열·장염 등에도 유의 필요
  - 말라리아의 경우, 양곤 및 만달레이는 비교적 안전하나 해발 1,000m 이하 농촌과 국경 지역은 말라리아 발생 지역
  - 환절기(3~4월, 10~11월)에는 평상시보다 뎅기열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질성 장염도 발병

## 다. 언론

### 1) 인쇄 매체

- 2011년 3월 민선정부 출범 이래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정치 및 종교 분야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 발간문에 대한 사전검열제를 4단계에 걸쳐 폐지한 데 이어, 2012년 8월 20일 모든 언론 분야에 대한 사전검열제 전면 폐지
  - 2013년 4월 50여 년 만에 민영 일간지 발행 허용
- 전국적으로 200여 개 주간지와 180여 개의 월간지 등 발간
  - 정치·사회와 관련 없는 스포츠(축구), 연예오락 등 대중 잡지도 상당수

### 2) 방송 매체

- TV로는 국영방송국 2개(MRTV, Myawaddy TV), 반민반관 채널 1개(MRTV-4), 해외 위성방송용 민간 유료채널 1개(Skynet TV, 38개 채널 연계) 등 운영 중
  - 공보부 방송 MRTV(Myanmar Radio and Television, 1979년 Burma Broadcasting Service(BBS)로 출범 후 1997년 MRTV로 개칭)와 국방부 방송 Myawaddy TV(1995년 출범) 등 2개 국영 방송국 운영 중
  - 2004년 5월부터 반민반관 채널인 MRTV-4 운영 중(MRTV사와 Forever Group 합작)이며, 국제뉴스 및 영화 채널 등을 방영
  - 2011년부터 민간 유료 채널인 Skynet TV(38개 채널) 운영 중(해외 위성방송 채널 위주)
    - ※ 미얀마 TV에서 방영 중인 외국 드라마 중에서 한국 드라마가 높은 비중 차지
- 라디오로는 Myanmar Radio National Service(MRTV가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 1946년 출범), 주요 시청 운영 라디오 방송(FM Yangon, FM Mandalay, FM Nay Pyi Taw), 기타 소수민족 언어 라디오 등 운영 중

## 2. 문화

### 가. 문화 일반·종교

#### 1) 문화 일반

- 고대 미얀마는 인도 및 중국(주로 윈난) 문화권과 접촉이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종교·문학·건축·공예·연극 등 문화 제반 분야에서 인도로부터의 영향이 큰 편(인도와 비교할 때 중국 문화권의 영향은 약한 편)
  - 특히 인도로부터의 불교문화 영향 지대(반면 힌두문화는 큰 영향 없음)
    - ※ 미얀마 불교는 5세기에 인도 및 스리랑카로부터 미얀마 남부 몬족들에게 전래된 상좌부불교로 11세기 바간 왕조 당시 미얀마 전역으로 전파
- 영국 식민 지배를 거치며 서구 문물이 유입되었으나, 독립 후 미얀마 정부는 문화부를 설치하여 전통문화 보호·육성에 역점

#### 2) 종교

- 미얀마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종교 분포를 보면 불교가 압도적(88%)이며, 기독교(6%), 이슬람교(4%) 등
- 그중 미얀마 최대의 종교인 불교는 출생·사망 등 생활과 사상 및 도덕 등 대다수 국민들의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
- 군정 하에서 종교의 정치 참여를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불교는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영향력 행사
  - 불교는 1961년 누(Nu) 총리 집권 당시 국교로 선포되었으나, 1962년 네 윈은 집권 후 사회주의 헌법에서 불교의 국교성 부인
  - 1980년 불교정화법을 제정, 승려들을 각 지방 단위에 따라 위원회를 결성하고 승려들을 등록하게 하여 효과적으로 통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념일과 행사, 국가 중대사가 있을 경우 정계와 군부 지도자들이 저명한 고승을 방문

※ 극우 승려 아신 위라뚜가 이끄는 극단주의 불교단체 마바타(Ma Ba Tha, 민족과 종교수호위원회)는 반무슬림 운동을 주도하면서 민족주의·근본주의 법안 로비 등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력으로 성장. 마바타는 2018년 10월 14일 양곤 시내 중심부에서 1천여 명 규모의 親군부 국수주의 시위 주도. 미얀마 정부는 2019년 5월부터 아신 위라뚜에게 수배령을 내린 상태인바, 이번 조치가 아신 위라뚜의 수찌 국가교문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

- 다수인 불교도와 여타 소수 종교도 간 갈등이 간헐적으로 분출되는 등 종교적 갈등 요소 존재

- 까친과 꺼인 등 소수민족 상당수는 기독교도

- 1983년 몰라마인(Mawlamyine)시에서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에 세력 다툼 및 감정 충돌로 상호간 사원 방화 사건 발생(통행금지가 선포되고 정부군에 의해 진압)

- 1997년 3월 만달레이시에서 불교 여신도가 이슬람교도에게 성희롱을 당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이슬람 사원 일부가 파손되는 등 한때 양 종교 간 긴장 국면 조성(정부의 강력한 통금 조치 등으로 진정되었으나 갈등 요인 상존)

- 2012년 6월 라카인주, 2013년 3월 만달레이주 메익틸라에서 벌어진 불교도와 이슬람교도의 충돌로 양측에서 수백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뒤 반무슬림 정서 확대

- 이어 2016년 10월, 2017년 8월 말 두 번에 걸친 대규모 라카인 사태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70만 명 이상의 무슬림이 방글라데시로 이주한 것으로 추산

## 나. 복잡

- 더운 기후로 인해 중요한 행사나 모임을 제외하고는 정장을 잘 입지 않으며, 연중 기온의 변화가 그다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계절별 복장이 불필요

- 하의는 국가원수를 포함하여 남녀노소 모두 공식 업무 및 일상생활을 막론하고 롱지(longyi)라는 치마 형태의 전통 의상 착용
  - 발목까지 오는 긴 천을 허리에서 여며 입으며, 남녀의 여미는 방법이 상이
  - 구두 대신 맨발에 슬리퍼 착용

## 다. 축제

- 축제가 미얀마인 생활의 일부분으로 정착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축제가 불교와 깊은 연관
- 축제 명칭과 내용
  - Tabodwe(2~3월) :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기름진 쌀과 참기름, 땅콩, 생강, 코코넛 등을 섞어 음식을 만든 후 친지 및 이웃사람을 초청하여 대접
  - Tabaung(3월) : 각 사원에서 성대한 석탑 축제가 열리는데 승려용 옷감 경연대회 등을 개최
  - Thingyan(4월 중순) : 미얀마 최대의 물 축제로서 미얀마 신년 직전에 시작, 집집마다 봉안된 부처상의 얼굴을 향내 나는 물로 씻고 행인들에게 행운을 기원하는 뜻에서 물을 살포(태국 송크란 등 동남아 물 축제와 시기 유사)
  - Kason(5월) : 탄생, 득도, 열반이라는 석가모니의 3대 주요 행사가 5월 중에 있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로서 신성시되고 있는 보리수에 여성들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서 물을 뿌려 주는 풍습
  - Waso(7월) : 석가모니의 첫 번째 설교를 기념하는 뜻에서 청소년들은 꽃을 따서 부처상 앞에 바치며, 수도승들은 더욱 수도에 전념할 것을 결심(이 기간 중 불교도들은 결혼 및 이사 자제)
  - Thadingyut(10월) : 석가모니가 석 달의 안거 기간에 천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많은 깨달음을 얻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사람들이 불을 켜고 환영

## 라. 관습

- 왼손으로 상대방에게 물건이나 음식을 권하는 것은 결례
- 불교 및 동물·영물 숭상의 영향으로 쇠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닭고기를 선호

## 마. 언어

- 2008년 헌법에서 미얀마어를 공식어로 지정하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라카인·산·까친 등)에서는 해당 소수민족 고유의 언어도 사용



## 3. 관광

- 사찰·불탑·고궁 등 불교와 관련된 건축물이 많으며, 미얀마관광공사 및 여행사에서 관광을 주선
- 순수한 자연환경, 불교성지 순례 등 외국인, 특히 유럽인의 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교통·숙박 인프라 등이 부족하여 주변 국가에 비해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 2018년에는 약 355만 명의 외국인이 미얀마를 방문
- 양곤 지역에는 미얀마 최고의 불탑인 쉐다곤 파고다를 비롯하여 까바에 파고다, 솔레 파고다 등 수많은 불탑이 산재하여 있으며, 짜옥닷지 사원에는 약 66m 길이의 와불상 안치

## 쉐다곤 파고다(Shwedagon Pagoda)

- ‘금(Shwe가 금을 의미)으로 된 다곤의 불탑 사원’이라는 의미의 사원으로, 미얀마의 위대한 문화유산
  - 2,500년 전 고타마 부처 생존 시, 미얀마 상인이 8개의 부처님 모발을 얻어와 안치한 후 불탑을 건립한바, 초기의 쉐다곤 파고다는 약 20m에 불과했으나 계속 증축되어 현재의 높이는 98m
  - 1372년 바고의 한따와디 왕조 빈나우가 재건한 후, 1455~1462년에 신소부 여왕이 테라스를 건설했고 파고다 상단에서 하단까지 자신의 몸무게인 40kg의 금박을 입혔으며, 신소부 여왕의 오빠인 빈나기안이 파고다의 높이를 90m로 증축
  - 꾀바웅 왕조의 신부신 왕비가 파고다를 현재의 높이로 증축하였고 1788년 싱구 왕은 16톤의 동종을 기증, 1841년 따라와디 왕은 파고다의 북동쪽에 있는 40톤 가량의 동종 기증
  - 쉐다곤 파고다 경내에 있는 따자웅이라는 건물들은 1857년 민돈 왕이 건립한 것으로, 그 안에 많은 불상을 보존(1895년에 전면 보수하였고, 1931년 화재로 거의 전소되었다가 1941년에 다시 개축)
  - 사원은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하며, 맨발로만 입장 가능(무릎 위의 짧은 치마나 반바지, 민소매 옷 착용 시 입장할 수 없으며, 매표소에서 론지 대여 가능)
- 
- 양곤 북방 622km에 위치한 만달레이는 인구 약 170만의 제2의 도시로 (외곽의 만달레이주 인구 전체를 합산할 경우 약 616만 명), 미얀마 문화의 중심지
    - 꾀바웅 왕조의 마지막 수도였으며, 마하무니(Mahamuni) 사원, 쿠토도(Kouthodo) 사원 등 수많은 관광명소 보유
  - 만달레이시 남방 193km에 위치한 바간에는 불교 전성기인 11~13세기 중에 건립된 3천 5백여 개의 불탑이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으며, 미얀마 국민의 불심을 재인식케 해주는 명소
    - 불탑이 많이 세워졌을 당시에는 5천여 개에 이르렀으나 서구 열강의 침략과 영국·일본 등의 식민 지배, 1975년, 2016년 발생한 두 차례의 지진을 거치면서 많은 탑 소실
    -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 인레(Inle) 호수는 미얀마 북동부 해발 880m에 위치한 광활한 산정 호수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호수 주변에는 인따족이 사는 20여 개의 수상마을 산재
  - 인따족은 발로 노를 젓는 방식으로 어로 활동을 하며, 수초와 진흙을 섞어 만든 쥘묘(수상 밭)에서 토마토·오이 등을 재배

# VII

##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기본 관계
2. 정무 관계
3. 경제 관계
4. 개발협력
5. 사회·문화 관계
6. 영사·한인 동포 현황

## 1. 기본 관계

- 외교 관계 수립

- 1961.7.10. 영사 관계 수립
- 1962. 9. 7. 주양곤 총영사관 개설
- 1975. 5.16. 대사급 격상  
주양곤 총영사관, 주버마 대사관으로 격상

- 역대 주미얀마 대사

- |       |           |        |
|-------|-----------|--------|
| - 초대  | 1975~1979 | 안진생 대사 |
| - 2대  | 1979~1981 | 김형근 대사 |
| - 3대  | 1981~1983 | 이계철 대사 |
| - 4대  | 1984~1987 | 이상열 대사 |
| - 5대  | 1987~1990 | 권병현 대사 |
| - 6대  | 1990~1993 | 김항경 대사 |
| - 7대  | 1993~1996 | 김정환 대사 |
| - 8대  | 1996~1999 | 최경보 대사 |
| - 9대  | 1999~2002 | 정정검 대사 |
| - 10대 | 2002~2005 | 이경우 대사 |
| - 11대 | 2005~2006 | 이주흠 대사 |
| - 12대 | 2007~2010 | 박기종 대사 |
| - 13대 | 2010~2011 | 조병재 대사 |

- 14대      2011~2013      김해용 대사
- 15대      2013~2016      이백순 대사
- 16대      2016~2017      유재경 대사
- 17대      2018~            이상화 대사
  
- 역대 주한 미얀마 대사
  - 초대      1989~1990      에 쩌(Aye Kyin) 대사
  - 2대      1990~1994      틴 윈(Tin Winn) 대사
  - 3대      1994~1999      풍 민(Phon Myint) 대사
  - 4대      1999~2000      니 니 탄(Nyi Nyi Than) 대사
  - 5대      2001~2002      마웅 셰인(Nyunt Maung Shein) 대사
  - 6대      2002~2003      뇨 윈(Nyo Win) 대사
  - 7대      2003~2005      네 윈(Nay Win) 대사
  - 8대      2005~2012      묘 린(Myo Lwin) 대사
  - 9대      2012~2013      눈 흘라잉(Nyunt Hlaing) 대사
  - 10대      2014~2015      소 린(Soe Lwin) 대사
  - 11대      2016~2018      떻 우 마웅(Thet Oo Maung) 대사
  - 12대      2019~            탄 신(Thant Sin) 대사

## 2. 정무 관계

- 미얀마는 6·25전쟁으로 피해를진 우리나라에 약 5만 달러 상당의 식량(쌀)을 원조
- 이후 네 윈 군정 하에서 사회주의적 정책 기조에 따라 북한에 우호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1975년 우리와의 수교를 계기로 중립적 입장으로 다소 선회
  - ※ 당시 남·북 동시 유엔 가입문제에 대해 확실한 태도 표명 유보
- 1983년 10월 9일 전두환 대통령의 버마 공식 방문 시 북한이 저지른 아웅산 묘소 폭발 테러로 외교사절 등 우리 측 인사 17명 순국(당시 버마인 4명도 사망)
  - 미얀마(당시 버마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11월 4일 대 북한 단교 및 정부 승인 취소, 48시간 이내 북한공관원 철수라는 단호한 외교 조치 단행
  - 미얀마는 1984년 10월 유엔 총회 시 랑군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북한 테러 행위 비난
    - ※ 2014년 6월 6일 '아웅산 묘역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 건립
- 1988년 9월 집권한 SLORC 정부가 우리와의 경제협력 증진을 희망하여 양국 우호협력 관계 개선 계기가 마련되고, 1989년 3월 주한 상주 대사관 개설
- 1989년 10월 6일 제44차 유엔 총회에서 미얀마 대표가 최초로 우리의 유엔 가입 관련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 친한 정책으로 선회
  - 미얀마는 2007년 북한과 재수교 이후에도 남북 관계 관련 사항에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우리와의 기존 협력 관계 강화 중시

- 우리 정부는 당시 미얀마의 인권 상황, 서방의 제재 상황 등을 고려, 인도적 지원 중심의 무상원조를 제공해 오던 중, 2011년 3월 때인 세인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을 계기로 대 미얀마 유상원조 지원(2005년 이래 서방측 제재에 부응하여 중단) 재개를 결정하고, 우리의 개발 경험 공유 및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
  - 미얀마도 한국의 경제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의 경제 발전 경험 습득,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적극 희망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우리 요청 사항에 부응
- 2012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미얀마 국빈방문(29년만의 정상 방문)과 10월 때인 세인 대통령의 국빈방한에 이어 2014년 10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박근혜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 2014년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때인 세인 대통령의 방한 등이 이어지면서 한-미얀마 우호협력 관계의 발전 기반 지속 강화
- 미얀마는 라카인 문제로 인한 국제적 압박 및 대 중국 의존도 심화에 직면하여 한국·일본·인도·아세안 등과의 교류·협력을 확대 증진바, 특히 한국의 경우 한류 열풍에 힘입어 양국 관계 증진 기대감 상승
- 한편 미얀마 정부는 2018년 3월 한반도 상황 관련 환영 성명 발표, 2018년 5월 남북 관문점 선언 환영 성명 발표, 2018년 6월 미·북 정상회담 환영 성명 발표, 2018년 10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환영 성명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표명

### 3. 경제 관계

#### 가. 교역

- 미얀마는 2018년 기준 한국의 61위 무역국이며 2018년 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10.7억 달러 기록(한국무역협회 기준)
  - 수출은 2017년 대비 6.8% 감소한 5.3억 달러로, 주요 수출 품목은 수송기계·산업기계·철강·직물·섬유제품 등
  - 수입은 2017년 대비 15.9% 증가한 5.4억 달러로, 주요 수입 품목은 의류·농산물·신변잡화·임산물이며, 신발·신발 부분품 등
- ※ 미얀마는 2012년 서구 경제제재 완화에 따른 수출 재개 및 2013년 유럽연합 특혜관세(GSP) 혜택으로 의류·신발·가발 등 저임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투자가 증가하였고, 의류 등 CMP 가공품 수입도 지속 증가

#### 한국의 대 미얀마 연도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총 교역액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12	1,682	1,331	99.6	351	17.6	980
2013	1,193	705	-47.0	488	38.9	217
2014	1,380	800	13.5	580	18.9	220
2015	1,166	660	-17.5	506	-12.8	154
2016	1,220	761	15.3	459	-9.3	302
2017	1,036	573	-24.7	463	1.0	110
2018	1,071	534	-6.8	537	15.9	-3

출처: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대 미얀마 10대 수출입 품목

순위	수출 품목	수입 품목
1	수송기계	섬유 제품
2	산업기계	농산물
3	철강 제품	신변잡화
4	직물	임산물
5	섬유 제품	비철금속 제품
6	전기기기	광물성 연료
7	플라스틱 제품	전자부품
8	신변잡화	수산물
9	정밀화학 제품	제지 원료 및 종이 제품
10	석유화학 제품	수송기계

출처 : 한국무역협회

## 나. 투자

- 2019년 3월 말 기준, 우리의 대 미얀마 총 투자 금액은 58억 달러(신고 기준)이며 신고 건수는 1,124건, 신규 법인은 425개

## 한국의 대 미얀마 투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개)

연 도	투자 금액 (신고 기준)	신규 법인 수	신고 건수
1990~2013	4,334	126	296
2014	462	56	111
2015	71	53	154
2016	329	66	177
2017	319	61	199
2018	192	55	158
2019	45	8	29
합계	5,752	425	1,124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다. 경제협력 및 우리 기업 진출 현황

#### 1) 양국 간 경제협력 분야 조약 체결 추진

- 1964. 6.17. 무역협정 서명·발효 (1965.12.31. 종료)
- 1967. 9.30. 신무역협정 서명·발효
- 2002. 2.22.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2003.8.4. 발효)
- 2014. 6. 5. 투자보장협정 서명 (2018.10.31. 발효)

#### 2) 양국 정부 간 경제협력 관계 강화 노력

- 1992~2004년간 우리 정부는 에너지, 공공행정, 교통, 통신 등 경제·사회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6개 사업에 걸쳐 총 768억 원 규모의 EDCF를 미얀마 측에 지원

- 원리금은 전액 회수하였으나, 2005년 이래 서방의 대 미얀마 제재에 발맞추어 이후 EDCF 지원 중단
- 2005~2012년간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을 위한 한-미얀마 자원협력 위원회 6차례 개최
  - 2012년 3월 광물자원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광물자원위원회 별도 운영
- 2012년 4월 한-미얀마 경제협력포럼 개최(네피도)
  - 당시 떼인 세인 대통령, 우리 측 지식경제부 차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미얀마투자위원회(MIC) 위원장 및 주요 기업인 등 170여 명 참석
- 2013년 6월 제1차 한-미얀마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개최(네피도)
  - 양국 범부처 경제협력 추진체로서 우리 경제부총리와 미얀마 국가계획경제개발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 농촌개발, 농업, 건설·인프라, 에너지·자원, 투자, 금융, 인적자원 개발, 방송통신, 공공행정, 유상원조 등 폭넓은 협력 방안 논의
- 우리 정부, 2014~2017년간 5억 달러 규모의 대 미얀마 EDCF 지원 결정
- 2016년 7월, 2018년 4월 통상장관회담 개최
- 주요 경제협력 프로젝트로는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와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Dala Bridge)’가 있음
  - (경협산단) 양곤 북쪽 야웅니핀 지역에 68만 평 규모로 조성 추진, LH 최초의 해외직접투자 사업이며, 향후 우리 기업의 수출 전진기지 전망
    - ※ 미얀마 건설부(지분 40%), LH(40%), 민간 투자자(20%) 간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사업 추진 중
  - (우정의 다리) 양곤과 양곤의 강남 격인 달라 지역을 연결, 우리 EDCF 자금 1.4억 달러를 활용하여 사업 추진 중

### 3) 국내 산업계의 미얀마 노동인력 활용

- 2008년부터 고용허가제(EPS)를 통한 미얀마 인력 도입 체제를 구축하여 미얀마 근로자는 기본 3년, 최대 9년 8개월까지 한국에서 근로 가능
- 2018년 말 기준, 미얀마 근로자 2만 5천여 명이 국내 취업 중

#### 연도별 고용허가제 도입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8~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전체	437,544	51,556	51,019	59,822	50,937	53,855	704,733
미얀마	11,878	4,482	4,469	5,721	5,388	6,378	38,316
비중	2.7	8.7	8.7	9.6	10.6	11.8	5.4

출처 : 고용노동부

### 4) 우리 기업 진출 현황

- 약 200여 개의 우리 기업이 미얀마에서 운영 중
- 봉제 관련 업체 120여 개, 대기업 계열사 및 사무소 20여 개, 금융 업종 13개, 건설·인프라 관련 10여 개 등

### 5) 진출 업체별 현황

- (봉제업) 미얀마 진출 우리 기업 중 약 60%가 낮은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한 봉제기업
- 봉제업체 80여 개 및 자수·위싱·패킹·미싱·물류 등 관련 업체 40여 개
- 봉제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미얀마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
- 주로 양곤 인근의 흘라잉따야·쉐피따 산업단지 및 바고에 위치하고 있으며, CMP(Cut, Make & Package) 형태로 양곤항의 물류 기능 활용

- **(대기업)** 포스코, 롯데, CJ 등 20여 개의 대기업 진출
  - 포스코는 포스코대우(가스전), 대우아마라(호텔), 미얀마 포스코스틸(합석 지붕재) 등 7개 법인 운영 중
  - 롯데는 음료수 제조(Lotte-MGS Beverage) 및 프랜차이즈(롯데리아) 등 4개 계열사 진출
  - CJ는 CGV, CJ제일제당, CJ 대한통운 등 4개 계열사 및 대표사무소 운영 중
  - LG는 2014년 LG상사 진출 이후 합작투자자로 시멘트 및 전선사업 진출
  - 삼성은 삼성물산(트레이딩) 및 삼성전자의 판매·마케팅 지사만 진출
  - 이외 SK네트웍스, 효성 등이 상사(트레이딩) 운영 중
- **(금융업)** 은행·소액대출·보험 등 현재 18개 금융기관이 법인·지점·현지사무소 등을 운영 중
  - 2013년 우리은행, 하나은행 진출을 시작으로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이 현지사무소 개설
    - ※ 한국계 은행으로 유일하게 신한은행이 영업허가 확보(2016.2.), 지점 운영 중
  - 2014년에 진출한 하나MF, BS캐피탈 이후 우리캐피탈, IBK캐피탈, 신한카드, 농협, KB카드, 우리카드, JB캐피탈 등 15개 업체가 현지 소액대출 관련 법인 설립, 운영 중
    - ※ 미얀마 전체 MF는 170여 개, 이중 34개 내외만 외국계 업체
    - ※ 미얀마 소액대출 수요는 1.2조로 추정되고, 공급은 수요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며 불교문화 영향으로 연체율이 낮다는 점에서 높은 성장 가능성 시사
  - 2015년 진출한 동부화재보험이 현지사무소를 운영 중이나 아직까지 현지 업체(국영 미얀마보험 및 민간보험사 11개)만 영업 중
    - ※ 미얀마 정부의 보험시장 개방 조치에 따라 동부화재보험은 손해보험 부문 영업허가 신청 중(2019.6.)
- **(건설·인프라)** 우리 건설기업이 참여할 규모의 정부 인프라 사업 발주거의 없어 현재까지 콘도미니엄·호텔 등 건축사업과 건축자재사업 위주로 진행
  - 대우아마라호텔(롯데호텔&리조트 양근: 포스코건설) 등 외국인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주거지 개장

- 건설자재 수요 증가에 대응, 시멘트공장(요진건설, LG상사), Pile 공장(아주건설) 등이 진출
- 공공 분야로는 한국주택토지공사 및 한국도로공사가 주재원을 파견하며 산업단지과 신도시 및 민자 도로 사업 등의 신규 사업 검토
- 건설 분야 수주 현황(2019.8. 기준)
  - 최초 진출 : 1980년 9월 현대건설, 버마 나웅가트 다목적댐 공사 (9.4백만 달러)
  - 총 수주액 및 건수 : 25.4억 달러, 100건
  - 주요 진출 분야 : 플랜트(14.9억 달러), 건축(1.6억 달러), 토목(1.4억 달러)

### 우리 기업의 대 미얀마 건설 분야 수주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8.	합계
건수	25	7	12	15	18	15	8	100
금액	1,554	160	104	62	256	132	275	2,542

출처: 해외건설협회

- **(물류)** 기업물류를 담당하는 대기업 물류사로 (주)한진, CJ대한통운, 대우로지스틱스, 판토스(LG 계열)이 진출해 사업 확장 모색 중
  - 중소 물류회사로는 블루오션, 해륙, 대화물류, 에메랄드카고, 두라로지스틱스, 미얀코, 마린퓨처 두라로지스틱스, 이포트럭킹 등이 영업 중
- **(제조업)** LVMC사(舊 코라오) 현대차 조립공장(2019.2), 자일대우버스 상용버스 조립공장(2019.10. 가동 예정), LS/고려전선, 선진사료 등
- **(기타)** 자동차 판매, 식음료 프랜차이즈, 소비재 판매 등 분야에 우리 기업 진출
  - 자동차 판매 : 현대차 및 기아차에서 운영

- 프랜차이즈 : 롯데리아, 유가네닭갈비 등
- 소비재 판매 : 네이처리퍼블릭, 락앤락 등
- 기타 농업 및 광물자원 분야 일부 기업 진출

## 4. 개발협력

### 가. 대 미얀마 원조

- 미얀마는 2016년 우리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정, 중점 분야인 ▲ 지역개발 ▲교통 ▲에너지 ▲공공행정 분야를 위주로 대 미얀마 원조 지속 증가 예정
- 우리 정부의 대 미얀마 유·무상 원조 규모는 1987~2018년간 지출액 기준 총 353백만 달러 규모
  - (무상원조) 총 222백만 달러
  - (유상원조) 총 131백만 달러
    - ※ 우리 정부는 2005년 서방의 대 미얀마 제재에 따라 유상원조(EDCF) 지원을 중단하였다가 2014~2017년간 5억 달러 규모의 EDCF 기본약정 체결을 통해 2014년 EDCF 재개
  - 전체 수원국 중 13위(무상원조는 9위, 유상원조는 18위)
  - 주요 지원 분야는 농업·공공행정(이상 무상), 교통·통신·에너지(이상 유상) 등

## 우리나라의 대 미얀마 개발원조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1987~2013	2014	2015	2016	2017	2018(잠정)	계
지원액	138.19	25.48	23.91	47.31	77.61	40.39	352.89
무상	68.32	25.48	22.82	33.68	35.58	36.01	221.88
유상	69.87	-	1.10	13.63	42.03	4.38	131.01

\* 총 지출 기준(출처 : OECD.Stat, 2018년도는 OECD DAC 보고 통계)

### 나. KOICA 지원 실적

- 무상원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1991-2018년간 총 16,342만 달러를 지원
  - 출범 첫 해인 1991년부터 미얀마에 지원을 시작하여 우리의 대 미얀마 유상원조가 중단된 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상원조 제공
  - 주요 분야는 프로젝트, 개발건설팅,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민관협력 등
  - 대표적 사업은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새마을), MDI 건립사업, 직업훈련센터 지원사업,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 등

### KOICA의 대 미얀마 무상원조 규모

(출처 : KOICA, 단위 : 만 달러)

연도	1991~2013	2014	2015	2016	2017	2018(잠정)	계
지원액	5,405	2,138	1,750	2,551	2,287	2,211	16,342

※ 2009년부터 빈곤퇴치기여금 지원사업은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

## 다. EDCF 지원 실적

- 2018년 11월 기준, 현재 13개 사업, 7,486억 원 (678백만 달러) 승인

### 우리나라의 대 미얀마 EDCF 유상원조 규모

	사업명	승인 년도	승인액		집행액	추진 단계
			억 원	백만 달러	억 원	
1	전화통신망 확충사업	1992	57	8	57	종결
2	송배전망 확충사업	1994	136	17	136	원리금 회수
3	양곤항 컨테이너 아적장 건설사업	1996	118	15	118	종결
4	철도차량 구매사업	1996	166	20	166	원리금 회수
5	B형 간염백신공장 건립사업	2000	164	13	164	원리금 회수
6	전자정부 구축사업	2004	128	13	128	원리금 회수
7	500kV 따웅우-까마닛 송전망 구축사업	2013	1,129	100	7	본구매
8	IT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사업	2013	623	56	599	완공 평가
9	미얀마 철도 현대화사업	2014	508	45	2	본구매
10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	2014	1,562	138	45	본구매
11	똘똘 운하 개선사업	2015	692	61	-	컨설턴트 고용
12	만달레이~미찌나 철도개보수 사업 : 교타웅~메자 최우선 구간	2016	1,129	1,100	-	본심사
13	미얀마 전자정부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	2017	1,059	94	-	차관 계약
14	가스 수송망 효율화 증대사업	2018	1,276	113		
합 계			8,747	1,793	1,422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5. 사회·문화 관계

### 가. 문화교류 전반

- 미얀마 내에서 한류 열풍 지속
  - MRTV, MRTV-4, Myawaddy TV, Skynet 등 각 방송사에서는 주당 10편 내외의 한국 드라마 지속 방영(외국 드라마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 차지)
  - 우리 정부(대사관) 차원에서도 한국 문화 소개 프로그램 지속 개최
- 미얀마 내 양국 간 문화교류 주요 행사
  - 2003년 이래 매년 한국어말하기대회 개최
  - 2006년 이래 매년 한국영화제 개최(영화제 계기 유명 한류스타 미얀마 방문, 2013년 그룹 신화 출신 배우 김동완)
  - 2013년 이래 매년 K-Pop World Festival 미얀마 지역예선 개최
  - 2011년 6월 한국상품 전시회 겸 한식 소개 행사 개최
  - 2012년 2월 Korea Kimchi Festival 행사 개최
  - 2012년 11월 Korea Week 2012 행사 개최; 세계일류한국상품전, 한-미얀마 가수 합동콘서트, K-Pop 댄스 경연대회, 한국영화제, 한국어 말하기대회, 태권도대회
  - 2013년 10월 Korea Week 2013 행사 개최 ; 한국영화제, 한국어 말하기대회, 한국유학박람회, 아시아 뉴스타 모델 선발대회, Korean Food Promotion
  - 2014년 4월 한국 도자기 전시회 개최
  - 2014년 6월 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 문화 공연 등 개최
  - 2014년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 지방순회 문화 공연 개최 (네파도 및 만달레이)

- 2015년 5월 한-미얀마 수교 40주년 기념 Korea Week 개최 ; 수교 40주년 기념 갈라 디너, 한복 패션쇼, 도자기 전시회, 한식 홍보 행사, 한-미얀마 전통문화 공연, 한-미얀마 정부포럼 개최  
※ 미얀마 유력일자 일간지 Myanmar Times에서 한-미얀마 수교 40주년 특집호 발행
  - 2015년 9월 제5차 세계씨름대회 겸 제1차 아시아씨름대회 개최
  - 2015년 10월 수교 40주년 기념 국경일 리셉션 개최  
(IT 전시회(삼성, LG), 전통공예품 전시회, 한식체험 등 부대행사)
  - 2015년 11월 수교 40주년 기념 문화 공연 개최 (MCC)
  - 2016년 3월 미얀마 저명작가 전시회 개최
  - 2016년 11월 난타 공연 개최 (네피도, 양곤)
  - 2017년 7월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 기념 한-미얀마 현대미술 교류전 개최
  - 2018년 6월 미얀마 독립 70주년 기념 한국 전통무용 공연 ‘천년의 몸짓’ 상연(양곤, 만달레이, 네피도)
  - 2018년 11월 미얀마 독립 70주년 기념 K-Wind Soul Beat 개최(양곤, 네피도) ※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참석
  - 2018년 11월 미얀마 독립 70주년 기념 한-미얀마 현대미술 교류전 개최
  - 2019년 3월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30주년 기념 K-Pop Friendship Concert in Yangon 개최  
※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영상 메시지 송부
- 한국 드라마 열풍에 힘입어 한식, 한국 상품, 한국 패션 등에 대한 인기 급상승  
※ 양곤을 중심으로 다양한 K-Pop 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자체적으로 연례 페스티벌 등 개최 및 각종 행사에 찬조 출연
  - 체육 부문 교류
    - 한국 태권도 시범단 방문 시범(연 1회) 및 미얀마 태권도 선수 방한 전지훈련
    - 2006년 이래 매년 주미얀마대사배 태권도대회 개최

- 2013년 및 2014년 미얀마 유소년 축구팀, 한국유소년축구협회 개최 'Youth Football Festa in Korea' 참석
-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미얀마 선수단 참석, 금메달 2개(세팍타크로) 획득
- 2016년 6월 한-미얀마 국가대표 여자축구 친선경기 개최(양곤)
- 2018년 8월 Alpine Cup 한국 19세 이하 국가대표 참석, 3전 전승 우승
- 2019년 5월 포항 스틸러스-미얀마 프로축구팀, 미얀마 22세 이하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개최

## 나. 한국학 현황

- 양곤 외국어대와 만달레이 외국어대에 한국어과 개설, 운영 중
  - 양곤 외국어대는 1993년 9월 한국어과를 개설하고 1995년 8월 제1회 졸업생 배출, 1996년 9월부터 정규 학사과정 개설
    - ※ 2011년도 신입생 수 50명, 2012년도 80명, 2013년도부터 100명 내외 지속
  - 만달레이 외국어대는 1997년 한국어과 개설
    - ※ 2015년도부터 신입생 수 50명 내외 지속
- 또한 KOICA가 양곤 및 만달레이 외국어대에 한국어 분야 해외봉사단 파견 중 (2019년 6월 기준 양곤 3명, 만달레이 3명 파견)
- 2016년 8월 양곤 외국어대 중앙도서관에 한국학 자료실(국립중앙도서관 지원), 양곤대학에 세종학당(부산외국어대학 지원) 각각 개원
  - ※ 세종학당 매년 수강생 급증 : 2016년 60명 → 2017년 129명 → 2018년 214명
- 매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총 3,393명이 시험을 신청할 정도로 상당한 인기(아세안에서 베트남, 태국에 이어 3위)
  - ※ 최근 3년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신청자 수 : 2016년 1,826명 → 2017년 3,248명 → 2018년 3,393명

### 미얀마의 한국행 유학생 추이

유학 개시 연도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					KOICA 초청 장학생
	수학 과정				소계	수학 과정
	학사	석사	박사	어학		석사
2007	1	0	0	0	1	0
2008	9	16	5	0	30	1
2009	10	7	5	0	22	6
2010	5	9	1	4	19	7
2011	1	1	0	6	8	8
2012	2	6	0	0	8	10
2013	2	4	2	0	8	7
2014	1	7	1	0	9	20
2015	1	7	0	0	8	20
2016	2	11	4	0	17	27
2017	1	7	5	0	13	32
2018	2	10	5	0	17	13
총계	37	85	28	10	160	151

## 6. 영사·한인 동포 현황

### 가. 한인 동포 현황

- 2019년 기준 미얀마 거주·체류 중인 재외동포 수는 약 3,860명으로 추산(재외국민등록부 및 한인단체 의견 참고)  
※ 최근 5년간(2015~2019) 신규 재외국민 등록 수는 810명(연평균 162명)이며, 2019년 6월 기준 재외국민 등록 총 누적수는 3,038명이나, 미신고 수(미등록자 및 귀국자 등)를 감안하면 실제 동포 수는 약 3,860명으로 추정
- 2011년 미얀마 민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 정책 추진에 따라 최근 수년간 자영업자, 상사 주재원 및 투자기업 임직원, 선교사 유입 증가로 한인 사회 확대 추세
- 업종별로는 봉제업, 유통업, 제조업, 무역업, 관광업, 건설업, 인력송출, 음식점 등 서비스업, 선교 활동 등에 다수 종사
- 대부분 한인들이 양곤 지역에 체류하고 있으며 만달레이 등 여타 지역에 100여 명 거주 추산
- 한인단체 현황
  - 재미얀마한인회(회장 전성호, 2018년 1월 임기 시작)
  - 민주평통자문위원회(평통 위원 9명, 분회장 김춘섭)
  - 한인상공회의소(회장 : 윤현섭)
  - 한인봉제협의회(회장 : 서원호)
  - 양곤시니어클럽(회장 : 강인식)
  - 미얀마선교사협의회(회장 : 주우찬)
  - 재만달레이지역한인회(회장 : 조성현)
  - 기타 한인청년회, 한인부인회, 해병전우회, 한글학교 등
- 재미얀마 한글학교(1989년 11월 개교)
  - 규모 : 학생 86명, 강인식 교장 외 교사 10명(재외동포)

- 장소 : KOREA CENTER(한인센터)
  - ※ 동포사회 숙원 사업으로 추진했던 KOREA CENTER(한인센터)는 동포재단 지원금 15만 달러와 한인사회 모금액 110만 달러(현물 포함)을 기반으로 미얀마 중견기업 쉐따웅(Shwe Taung) 그룹이 제공한 무상임대 부지에 2015년 10월 10일 완공되었으며, 현재 한글학교는 한인센터 내 입주
- 활동 내역 : 정규 한글 수업 이외에 한국어말하기대회, 여름캠프, 추석 행사 등을 개최, 한글 및 한국 문화 보급 노력

## 나. 미얀마 비자 발급 제도

- 한-미얀마 간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비자면제협정(2011년 4월 발효)이 체결되어 있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일반 여권 소지자도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 1년간 관광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 가능(최대 30일간 체류 가능하며 연장 불가)
  - 단, 일반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비관광 목적으로 미얀마 입국 시, 서울 주재 미얀마 대사관 또는 제3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을 방문하거나, 미얀마 이민부에서 운영하는 e-Visa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비자 취득 필요
    - ※ 미얀마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국인 대상 관광 비자 면제 조치(1년간 한시적) 시행. 미얀마 측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비자 면제 조치 연장 검토(2019년 8월 현재 기준)
- 외국인투자 업체 및 미얀마인 명의 업체 임직원 등의 경우 3개월, 6개월 또는 최장 1년 단위로 체류 기간 갱신이 가능하나 복잡한 갱신 절차 등으로 많은 한인들이 단기 상용 단수비자(체류기간 70일)를 발급받아 체류
  - 유효기간 6개월 또는 최장 1년 복수비자(상용)의 경우에는 비자 갱신 시 70일마다 출국 불필요
- 미얀마 영주권 제도는 2014년 12월 도입되었으나 극히 일부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

## 다. 한-미얀마 인적교류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미얀마→한국	60,112	59,237	68,822	70,288	71,517
한국→미얀마	58,472	63,715	64,397	65,829	72,852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미얀마 관광국

# VIII

## 북한과의 관계

1. 개 관
2. 주요 인사 교류 현황
3. 조약·협정 및 기타 문서

## 1. 개 관

- 과거 미얀마는 남·북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한다고 표명하면서도 정치적으로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성향 유지
- 1983년 10월 북한이 아웅산 묘역 폭파 사건을 일으키자 1983년 11월 버마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 단절, 북한 정부 승인 취소, 주버마 북한대사관 쏠 직원 48시간 내 추방 등의 외교 조치 단행
  - 미얀마는 아웅산 묘역 폭파 사건 이후 북한의 공식 사과가 없는 한 대북 수교는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 견지
- 2000년 미얀마 정부는 북한의 ARF 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태국 외무장관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과 관계 정상화에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
- 2007년 4월 양곤에서 쯔 뚜(Kyaw Thu) 외교차관과 북한 김영일 외무성 부상 간 수교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북한-미얀마 간 복교
  - 2007년 9월 쯔 뚜 외교차관이 친선 목적으로 북한 방문(제차 정책 협의회 개최)
  - 2007년 10월 김석철 주미얀마대사가 미얀마에 입국, 12월 7일 신임장 제정
- 2016년 3월 정호범 신임 대사 부임, 5월 신임장 제정
- LD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준수한다는 입장 견지
  - 2018년 3월 양곤 소재 유일한 북한 식당(평양고려식당) 폐쇄 조치

## 2. 주요 인사 교류 현황

- 2008년 8월 띠 아예(Tin Aye) 방위산업국장, 떼인 테이(Thein Htay) 국방부 제2차관, 군사물자 도입 계약 체결을 위해 북한 방문
- 2008년 10월 난 윈(Nyan Win) 외교장관 북한 방문
- 2008년 11월 김영일 외무성 부상 미얀마 방문(제2차 정책협의회)
- 2008년 11월 쉐 만(Thura U Shwe Mann) 군 총사령관 북한 방문  
- 북한 김격식 총참모장 초청으로 방문, 양국 군사협력 방안 논의 및 MOU 체결
- 2009년 6월 띠 아예 방위산업국장, 떼인 테 국방부 제2차관 등 북한 방문, 군사물자 도입 계약 관련 협의
- 2010년 5월 마웅 민(Maung Myint) 외교차관 북한 방문(제3차 정책협의회)
- 2010년 7월 박의춘 외무성 부상 미얀마 방문  
- 떼인 세인 총리, 난 윈 외교장관 및 쯔 산(Kyaw Hsan) 공보장관 등 면담
- 2012년 6월 김영일 노동당 국제부장 미얀마 방문  
※ 라오스 및 베트남 방문과 연계
- 2014년 8월 이수용 외무상, ARF 참석차 미얀마 방문  
- 떼인 세인 대통령, 쉐 만 하원의장 예방 및 외교장관회담 개최
- 2015년 2월 이길성 외무부상 미얀마 방문
- 2015년 9월 판 쯔 외교차관 북한 방문
- 2016년 7월 ARF 계기 미얀마-북한 외교장관 회담(라오스)

### 3. 조약·협정 및 기타 문서

- 2007년 9월 외교부 차관급 정책협의회 설립 MOU 서명
- 2008년 11월 군사협력 관련 MOU 체결
- 2008년 11월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

# IX

---

## 부록

---

1. 주요 인사 인적사항
2. 조약 및 기타 양자문서 체결 현황
3. 대사관 정보
4. 약어 정리
5. 미얀마 공휴일

# 1. 주요 인사 약력

<p><b>대통령</b> 원 민(U Win Myint) ※ U는 영어의 Mr.에 해당하는 미얀마 존칭</p>		<p><b>국가고문</b> 아웅산 수찌 (Daw Aung San Suu Kyi) ※ Daw는 영어의 Ms.에 해당하는 존칭으로, 미얀마 국민들은 Amay (Mother) Suu라 호칭</p>	
<p>1951.11.8. 예야와디 출생 양곤예술과학대 지질학과 졸업 1985 고등법원 변호사 1988 민주화항쟁 참여 후 구금 1990 예야와디주 하원의원 당선 군부의 당선 무효화 조치 후 재구금 2012 예야와디주 하원의원 당선 하원 법치안정위원회 사무총장 2015 양곤주 하원의원 당선 2016 연방 하원의장 2018 대통령</p>		<p>1945.6.19. 양곤 출생 1964 델리대학교 정치학 학사 1969 옥스퍼드대 PPE 과정 학사 런던대학교 SOAS 석사 수료 1988~2012 NLD 사무총장 2012 연방 하원의원 당선 하원 법치안정위원장 2013 NLD 의장 2015 연방 하원의원 재선 2016 국가고문 (외교장관 및 대통령실장관 겸임)</p>	
<p><b>제1부통령</b> 민 쉐 (U Myint Swe) ※ U는 영어의 Mr.에 해당하는 미얀마 존칭</p>		<p><b>제2부통령</b> 헨리 반 티유 (U Henry Van Thio) ※ U는 영어의 Mr.에 해당하는 미얀마 존칭</p>	
<p>1951.6.24. 만달레이 출생(몬족) 1971 국방사관학교 졸업 1997 준장 진급 2001 서남지역사령관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 가입 2002 소장 진급, 양곤 지역 경보병사단 사령관, 양곤지역평화발전위원회장 2004 군안보원장 2005 중장 진급(소수민족 출신 중 최초) 2006 특수작전사령관 2011 양곤주지사 2016 제1부통령</p>		<p>1958.8.9. 친 출생(친족) 미얀마 정부군 복무(소령 퇴역) 2015 연방 상원의원 당선 2016 제2부통령</p>	

<p><b>하원의장</b> <b>티 쿤맛</b> (U T Khun Myat)</p> <p>※ T는 가족 이름인 Tangbau의 앞글자 ※ U는 영어의 Mr.에 해당하는 미얀마 존칭</p>		<p><b>상원의장</b> <b>윈 까잉 탄</b> (Mahn Win Khaing Than)</p> <p>※ Mahn은 꺼인으로 영어의 Mr.에 해당하는 미얀마 존칭</p>	
<p>1950.10.30. 산 출생(까친족) 양곤통신대학 법학과 졸업 1975 변호사 1990 연방법원 과장 2007 헌법 초안 제정위원회 2008 헌법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2010 USDP 입당 하원 북부 산주 USDP 집행위원 2011 연방 하원의회 입법위원장 2015 USDP 탈당 2016 연방 하원부의장 2018 연방 하원의장</p>	<p>1952.4.23. 에야와디 출생(꺼인족) 1975 양곤예술과학대 법학과 졸업 1988 카렌 문학-문화협회 이사 1990 카렌연방동맹 가입 2013 NLD 가입 2015 카렌주 상원의원 당선 2016 연방 상원의장</p>		
<p><b>군 총사령관</b> <b>민 아웅 흘라잉</b> (U Min Aung Hlaing)</p> <p>※ U는 영어의 Mr.에 해당하는 미얀마 존칭</p>		<p><b>대법원장</b> <b>툰 툰 우</b> (U Htun Htun Oo)</p> <p>※ U는 영어의 Mr.에 해당하는 미얀마 존칭</p>	
<p>1956.7.3. 타닌따리 출생 국방사관학교 학사 국립국방대학 국방학 석사 1977 임관 2002 삼각주(Triangle Region) 사령관 2008 소장 진급 2009 중장 진급 2010 합동참모본부장 2011 장군 진급 2012 군부총사령관 2013 군총사령관</p>	<p>1956.7.28. 출생 1979 양곤예술과학대 법학과 졸업 1981~1989 남서지역 사령부 소속 대위 1990~1994 법무관리관 2007~2011 副대법원장 2011 대법원장</p>		

## 2. 조약 및 기타 양자문서 체결 현황

### 가. 조약

조약명칭	서명일	발효일
대한민국 정부와 버마 연방정부 간의 무역협정	1964.6.17.	1964.6.17. (1965.12.31. 종료)
대한민국 정부와 버마 정부 간의 무역협정	1967.9.30.	1967.9.30.
대한민국 정부와 버마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	1978.1.28.	1978.1.28.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 간의 대미얀마 연방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1993.2.15.	1993.2.15.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1994.12.13.	1994.12.13.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1997.5.6.	1997.5.6.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1997.10.24.	1997.10.24.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1997.10.31.	1997.10.31.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00.10.31.	2000.10.31.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2002.2.22.	2003.8.4.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04.12.31.	2004.12.31.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 연방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2010.12.29.	2011.4.1.

조약명칭	서명일	발효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 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 협정	2012.12.29.	2013.1.24.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 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 약정	2013.8.29.	2013.8.29.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 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2014~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 약정	2014.7.24.	2014.7.24.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 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 약정	2014.9.22.	2014.9.22.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 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보장협정	2014.6.5.	2018.10.31.

## 나. 기타 양자 문서

시기	내용
1972. 1.	뉴스교환협정
1999. 7.	임업약정 체결
2002. 12.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설치 MOU 가서명
2005. 4.	한·미얀마 자원협력위원회 TOR 서명
2009. 4.	한·미얀마 외교부 간 정책협의회 설립 MOU 서명
2016. 11.	한·미얀마 교육협력 MOU 서명
2017. 9.	한·미얀마 국방협력 MOU 서명
2018. 5.	한·미얀마 반부패 분야협력 MOU 서명

### 3. 대사관 정보

#### 가.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 97, University Avenue P.O. Box 1408, Yangon, Myanmar
- 전화 : (95-1)527142-4
- Fax : (95-1)513286
- 시차 : -2시간 30분

#### 나. 주대한민국 미얀마 대사관

- 주소 : (140-21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28길 12
- 전화 : (02)790-3814~6
- Fax : (02)790-3817



## 4. 약어 정리

ADB	Asian Development Bank
AFPFL	Anti-Fascist People's Freedom League
ARF	ASEAN Regional Forum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BDA	Burma Defence Army
BIA	Burma Independent Army
BNA	Burma National Army
BRA	Burma Revolutionary Army
BSPP	Burma Socialist Programme Party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GDP	Gross Domestic Product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RTV	Myanmar Radio and Television
NCA	Nationwide Cease-fire Agreement
NCCT	Nationwide Cease-fire Coordination Team
NDF	National Democratic Force
NDSC	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Council
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RPC	National Reconciliation and Peace Centre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PP	Purchasing Power Parity
SEZ	Special Economic Zones
SLORC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SNDP	Shan Nationalities Democratic Party
SPDC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UPWC	Union Peace-making Working Committee
USDP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 5. 미얀마 공휴일

공휴일	1.4.	독립기념일
	2.12.	Union Day
	3.2.	농민의 날
	3.27.	국군의 날
	5.1.	노동절
	7.19.	순교자의 날
	12.25.	성탄절
	미얀마력에 따라 매해 변경	꺼인족 새해
	상동	따바웅족 대보름
	상동	띤잔(미얀마 신년 및 물축제)
	상동	까송족 대보름
	상동	와소족 대보름
	상동	따딘쫏족 대보름
	상동	따자웅몽족 대보름
	상동	국경일
	상동	Idul Alhwaha
상동	Deepa Vail	

## 미얀마 개황

---

발행일 2019년 8월  
발행처 외교부 동남아2과  
편집디자인 나무와숲 (02-3474-1114)  
인쇄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ISSN 2005-9124 비매품

※ 이 책의 내용은 <http://www.mofa.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발간등록번호  
11-1262000-000064-14



ISSN 2005-9124

